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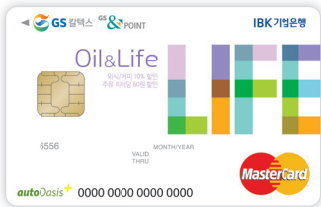
이달의 편지
엄마 저 취직했어요! 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구하다, 즐겁다, 건강하다

2015 January **01**





4.10일 현재



Oil&Life 카드_Life 카드

외식/커피/제과점/주점 10% 할인

• 월 1만원 한도, 전국 음식점/주점/제과점/커피전문점/커피전문점/제과점/주점에서 사용 시 제공
• 발급대상 : 개인회원(가족회원 발급불가) / 연회비 : UnionPay 5천원, Master 1만원

공동서비스

GS칼텍스 리더당 60원 할인, 오토오아시스 차량정비할인, GS&POINT 적립, 통신/영화/놀이공원 할인, 금융수수료 면제

※ 모든 카드서비스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 및 할인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하시기나 홈페이지(www.ibk.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4-1535호(2014.10.08)

계시기한 : 2015.09.30

• 이 안내문은 2014. 10. 08일 현재까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사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처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시 즉시 안내합니다.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이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없이 ☎1332, IBK 기업은행 : ☎090-0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청문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를 (최저 연 16.5%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를 및 연체이수에 따라 차등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15년 1월호



04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구하다, 즐겁다, 건강하다



08 이달의 편지
엄마 저 취직했어요! 외

70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에스제이트랜드 유인석 대표

78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우리 집 가훈은 '남들과 다르게 살자'



84 코너 속 편지
혈크소녀 외

106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사랑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존중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비교적 괜찮은 한 해 되시길

112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극장으로 가는 길

114 행복한 책 읽기
《이 미친 그리움》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1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 한재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숙이 **칼럼진**(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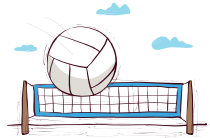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겨울약)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배구하다, 즐겁다, 건강하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의 매송 배구 동호회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겨울밤은 길고 깊다. 다들 옷깃을 세우며 집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길 시간인 저녁 7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의 들판 한가운데 위치한 체육관은 대낮처럼 환한 불빛으로 가득하다. 여성시대 가족 김경자 씨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 배구를 하기 위해서다.

부지런히 식구들의 저녁을 차려 놓고 나오는 주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혈레벌떡 뛰어온 사람들이 하나둘 씩 체육관에 모여든다. 두꺼운 겹옷을 벗어놓고 코트를 서너 바퀴 돌며 슬슬 몸을 푼다. 몸이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두 사람씩 서로 마주보며 토스와 서브 연습을 한다.

‘매송 배구 동호회’ 회원들은 30여 명 가까이 된다. 한겨울 북풍한 설을 물리치고 코트에 나와 배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김경자 씨의 경우는 쉰 살이 넘으며 찾아온 갱년기 증상으로 몸도 마음도 울적할 때 동네 부녀회장님이 “화성시 체육대회에 나갈 배구





선수가 부족한데 한번 나가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초등학교 시절 배구선수였던 김경자 씨였지만 37년 만에 잡아보는 배구공은 낯설기만 했다.

대회를 위한 일회용 선수로 참가에 의의를 두고 대회에 나갔는데, 결과는 1라운드 탈락이었다. 다들 비슷한 수준의 아줌마들은 예상된 결과에 깔깔거리며 웃었을 뿐이다. 그게 2년 전 일이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참가선수로 뽑혀 2년 만에 만나는 아줌마들과 웃으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분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저는 옆 동네 매송 배구 동호회 감독입니다. 아주머니들 운동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저희 동호회에 오셔서 함께 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시작이었다.

홀시어머니 모시고 주말부부로 살며 세 아이를 키우느라 고단하고 힘들었던 일상이 배구공을 잡고 던지는 사이 스트레스라는 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몸도 탄탄해졌다.

몸 풀기에 이어 상대편 공을 받는 리시브, 자기편에게 단순히 공을 보내는 패스, 자기편에게 넘겨주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토스, 토스된 공을 상대편 코트에 때려 넣는 스파이크, 상대편 공격을 저지하는 블로킹 기술을 연습한다.

이렇게 두어 시간이 획 지나가고, 두 팀으로 나뉘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한다. 얼굴에서 연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운동복도 땀으로 흠뻑 젖는다. 경기에 진 팀은 각자 천 원씩을 내, 다음 연습 때 간식비로 충당한다.

올해 일흔이 되신 유진갑 회장님과 생활체육인 생활 33년의 이대연 감독님, 8년 전 배구공을 처음 잡고 그해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지만 배구공을 손에서 놓지 않은 손희정 총무, 작년 2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배구를 통해 건강을 회복중인 함인식 씨, 초등학교생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엄마 한옥 씨 등이 즐겁게 배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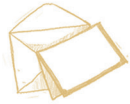
직업군도 다양하다. 목사님, 은행원, 군인, 농부, 회사원, 자영업 등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다. 연령층도 삼십대부터 칠십대까지 층이 두텁다.

“네트 너머로 스파이크를 꽂아 넣을 때나, 넘어온 공을 잘 받아 칠 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코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체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신사적인 운동이 배구예요. 배구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배구 전도사가 된 김경자 씨는 한겨울임에도 추위를 모르고 산다.

밖은 영하 16도의 매서운 날씨인데, 체육관 안은 이미 여름이라도 온 듯 열기로 가득하다.





1월은 순백의 백지장 같은 시간입니다. 순백의 도화지 한 장을 받아 들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하나 생각을 골똘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생각도 행동도 말도 조심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1월의 여성시대 우체통은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새해 소망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 가장 첫손으로 꼽아주신 건 단연 건강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건강하길 기원하는 편지가 압도적입니다. 혼자만 건강하게가 아니라 주변도 함께 건강했으면 하는 고운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 합니다. 세월도, 고운 마음도 흘러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 지혜의 눈을 튀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사회의 건강,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도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주변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여성시대를 통해 한 시대를 같은 걸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우리 여성시대 가족들 2015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성시대를 잘 부탁드립니다.

2015년 여성시대 우체통에 어떤 사연들이 도착할지 설레고 기대됩니다.



이달의

편지

10 엄마 저 취직했어요!

14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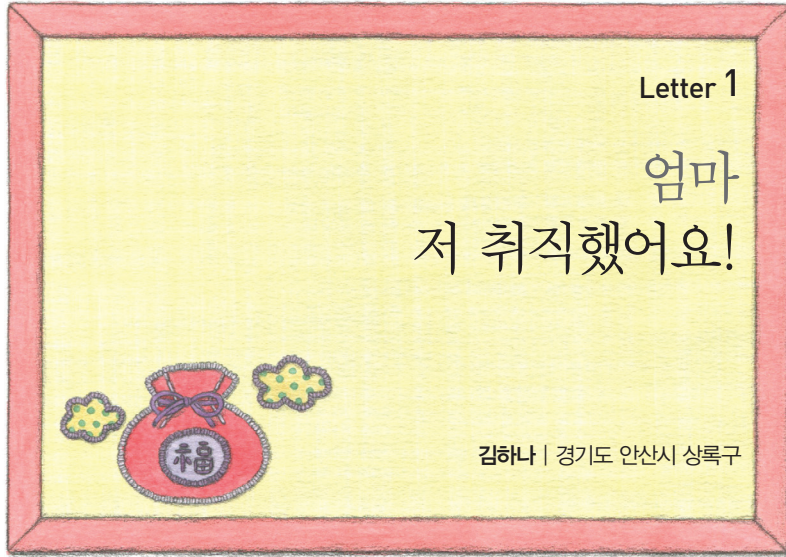
19 어느 날 갑자기 23 휴대폰에 절을 하다

27 결혼 이불의 추억 30 영업사원을 일어서게 한, 밤 한 끼

35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며 41 우리는 사십대

43 감정노동 힘들어요! 48 예음아 53 경비원 아버지

56 경비원인 나의 하루 60 만학도의 졸업여행



저는 24살인 대학생 김하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빠가 골동품인 옛날 큰 라디오를 구해온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나 청소할 때 밥할 때도 저희 집엔 라디오 소리가 가득합니다.

엄마는 두 분의 목소리를 특히 좋아하셔서 여성시대 방송시간에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집중하십니다. 그런 엄마 덕분에 아침마다 저도 같이 여성시대를 듣고 있어요. 거의 매일 듣다보니 저도 글재주는 없지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이자 아주 즐거운 소식을 깜짝 이벤트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드시피 저는 24살이고요. 대한민국 어느 청년들과 다름없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흔히들 말

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도 요새는 제 나이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은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잠깐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내년이면 오십의 반이에요. 물론 어른들이 들으면 비웃으시겠지만 취업을 앞둔 저에겐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학교에 가거나 특히나 교양수업을 들으면 같은 학번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고, 제가 10학번인데 어느덧 14학번이 학교에 있더라고요. 제가 풋풋한 신입생이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흐른 거예요.

주변을 보면 취업한 친구들도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면 취업 얘기, 면접 얘기를 주로 합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변한만큼 뭔가 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안하지만 적잖이 제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제 부모님은 '정말 이런 부모님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표'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다 그랬듯이 제 부모님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등등 모든 면에서 저에게 늘 풍족하게 해주려고 애쓰셨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거나 부탁드렸을 때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절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몇 년 전 유방암이라는 큰 수술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항상 애쓰세요. 유방암 4기, 이것만으로도 작은 병이 아닌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에 항암치료도 수차례 받으시는 고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늘 아픈 티 내지 않으려 하시고,



오히려 엄마의 자리를 못 지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제 엄마세요.

정말 날개 없는 천사예요, 진짜! 엄마는 늘 저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정 취업 안 되면 엄마랑 같이 가게 차리면 되지!” 이런 말로 힘을 불어넣어주십니다.

그래도 강의가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자고, TV를 보고 허송시간 보내는 저를 보며 알게 모르게 속이 타셨을 겁니다. 티는 안내셨지만 학교 졸업하고도 ‘저게 집에만 저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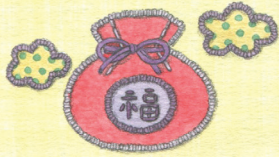
엄마,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취업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엄마는 기억 안 나실 지도 모르겠지만 면접 보러 가기 전날 밤, 첫 면접이다 보니 두근거리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저에게 오셔서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하며 말없이 안아주셨던 그날 저는 뭔가 모를 죄송스러움에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그날 엄마의 포옹이 힘이 되었던 걸까요. 면접도 무사히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도 회사 쪽에서 편의를 봐주셨어요. 엄마 덕분에 합격이라는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완전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셨죠! 이제 저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 열심히 일해서 꼭꼭 보답하도록 할게요. 한 달 뒤에 첫 월급 받으면 엄마가 갖고 싶으신 거 제가 바로 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끝으로 진짜 쉬운 말인데도 잘 안한 말 전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



Letter 2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구상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휴~” 지금 시간 새벽 6시. 오늘도 12시간의 긴 운전
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였다. 나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빠르게 잠을 청한다. 얼마나 잤을
까, 요란한 알람소리가 내 귓가에 매달려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
고 있다. 도저히 떠질 것 같지 않은 눈꺼풀을 들어 올려 시계를 본
다. 오후 1시. ‘아,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오늘도 밤새워 운전
을 하려면 나에게겐 잠이 좀 더 필요한데, 침대가 강력접착제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바위보다 더 무거운
몸을 침대로부터 이탈시킨다.

계란 프라이를 두 개하고 커피 한 잔 끓여 마시고 정신을 차려본
다. 대충 요기를 하고 운동화를 신고 안양천 산책로로 나간다. 가
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하늘 한 번, 관악산 한 번 바라본다. ‘야아~,

저 하늘은 왜 이리 예쁜 거지. 손대면 쨍하고 금이 갈 것 같네’ 혼잣
말을 해본다. 햇살이 참 싱그럽다. 바람이 시샘을 하듯 약간은 쌀쌀
하게 느껴지는 날씨지만 운동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다. 운동화 끈을
질끈 맨다. 서서히 숨을 고르며 안양천을 달리기 시작한다. 헉헉,
숨이 차오른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멎을 것만 같다. 시계를 봤
다. 얼마나 뛰었는데 이렇게 힘이 드나 싶어 보니 이런 쟁장, 겨우 5
분이나 뛰었을까. 그런데 왜 이리도 힘이 드는 걸까. 언제부터 내 체
력이 이렇게 저질 체력이 되었단 말인가.

공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나다. 그때는 정말 대지가 넓은 줄 모르고
마치 미친 들소처럼 지칠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이젠
겨우 5분을 뛰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험땀대고
있다. 하긴 내가 땅을 밟고 달려본 지가 언제인가? 택시 운전을 한
지난 13년 동안 달리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듯하다. 야간 운전만
하는 나는 밤새 운전하고 자고 먹고 일어나서 밤새 12시간 또 운전
하고 그런 세월을 무려 13년이나 했으니 체력이 이리 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큰일이다. 그날은 30kg 모래주머니를 메고 뛰어야 하는 데 빈 몸
으로 뛰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니 어찌면 좋을까. 얼마 후면 어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될지도 모를 취직시험의 체력검사 시험이
있는 날이다. 안양시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 데 나는 그곳
에 지원을 해둔 터였다. 내 나이 50세. 환경미화원에 지원을 하다니
나에게는 참 슬픈 일이다.

군 전역 후 나는 경찰에 입문하였다. 경찰공무원 생활 10여 년. 당
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료경찰관이 연루되어
있는 교통사고를 축소 처리하였다. 그것이 잘못되어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서 퇴직을 해야만 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 결국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미화원이러니!

‘왜, 환경미화원이 어때서?’ 사람들을 흔히 말한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실상 직업에 귀천은 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내가 학교 엄마 모임에 가서 남편 직업이 택시 운전사라고 하면 은근히 따돌리더라. 그래서 아내는 아이 학교 모임에 나가서 남편의 직업을 숨겨야 했다.

또 있다. 얼마 전 일이다. 회사에 택시 운전이 천직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던 형님이 있었다.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꿈을 꾸며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운전을 하던 형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이다. 왜 그러냐고 형님께 물으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서 아버지 직업이 택시 운전이라고 했더니 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한다네. 딸은 괜찮다고 하지만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택시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거다.

그와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있었다. 우리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인데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녀석이 우울해 보였다. 사소한 것까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던 아들이라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내가 아들에게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냐? 요즘 힘들어 보인다.”

“아니에요. 요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더니 제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음날 밤늦게 집에 온 아들 손을 붙잡고 무작정 근처 맥주집으로 향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시다가 아들에게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어렵게 입을 뗐다.



“저, 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왜? 사귀 지도 얼마 안됐잖아.”

아들 녀석의 대답은 내 가슴에 눈물이 고이도록 만들었다. 여자친구가 어찌하다 아빠의 직업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면서 아들을 무시하는 듯 대해서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택시 운전은 천박한 일이야”라고 했단다. 그래서 아들은 여자친구와 이별을 택했다고 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들이. 아빠가 아들 가슴에 상처를 남겼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얘기 안하려고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인성을 가진 여자는 싫어요. 오히려 잘된 거예요. 죄송해요,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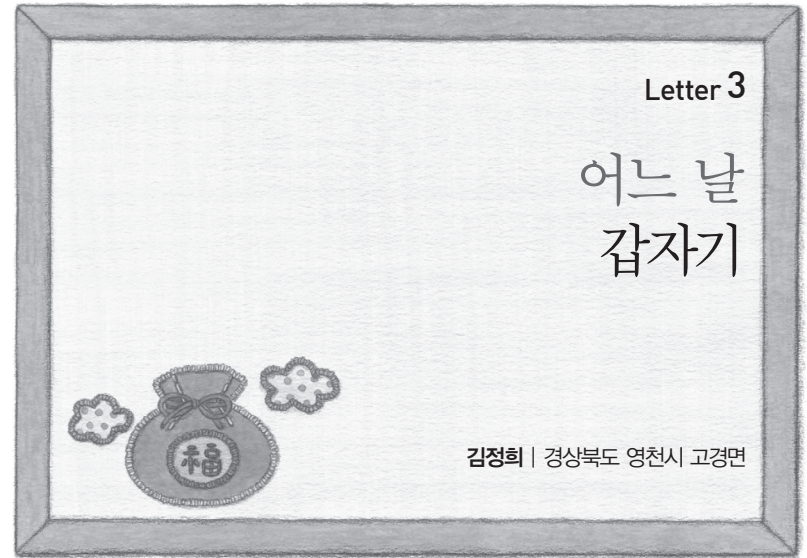
이래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솔직히 환경미화원에 지원하면서 많이 망설였다. 택시 운전엔 버금가는 3D 직종이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에게 어찌 말해야 하나? 아내에게는? 아직 가족은 모르는 일이다. 아내는 갑자기 운동 하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시험을 치르고 볼 일이다. 합격된 후에 그때 가족들과 심각하게 상의해 볼 참이다. 만약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다.

내가 환경미화원에 지원한 이유는 요즘 일어난 일 때문이다. 나 역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지난 13년간 무사고로 열심히 일했지만 몇 년 전부터 안양시에서는 택시 과잉 공급이라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줄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택시 감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달 13일, 나의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인사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무사고 경력 13년이 일순간 물거품이 되었다. 이제는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직업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면 가족들에게 끝까지 지원했던 사실을 숨길 참이다. 직업의 귀천에 대해 말했지만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직업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천하다고 생각하면 천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신체 건강해 환경미화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6일 남았다. 뛰자, 또 뛰자. 어차피 도전한 것 합격으로 마무리하자.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내 나이 오십에 뭐가 두려울쏘냐! 아자! 아자! 힘내자.



남 편이 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 아닙니다. 오늘은 분명 목요일이고 남편은 내일 와야 맞습니다. 28년 동안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나의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애기 좀 해”라고 합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남편은 2년 후 정년을 맞습니다. 남편 정년에 맞춰 친정 막냇동생이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영천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남편 정년인 2016년에 맞춰 그곳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이 남은 지금 사표를 내겠다고 합니다. 딸은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업해 한시를 놓았지만 의대 다니는 아들은 올해 제대해 이제 겨우 2학년으로 복학해서 아직 몇 년을 더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저는 2년만 더 참으면 정년인데 이제까지도 잘 참았는데 2년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 좀 살려줘~” 하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술 한잔 못 마시는 남편은 대기업에서 28년 동안 관리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유통관리 업무를 맡은 남편은 승진에서 밀렸고 결국 지방으로 발령받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아들 학비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고 일해 왔는데 최근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인데 가슴을 치며 살려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남편은 벼랑 끝에서 제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고 있

는 듯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하고는 다음날 일단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쌀쌀한 날씨임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해 절반을 용자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2년 보유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데, 아직 입주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그래도 무슨 돈으로 용자금을 내지.’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년 후에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까지 2년 동안 신세 좀 지겠노라 했습니다. 친정 막내 남동생에게 나이 들어 이렇게 신세지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싫었지만, 아직 공부해야 하는 아들이 있고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용자금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는 형편이라 두 눈 꼭 감았습니다.

일단 동생 공장 마당 한켠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우리 가족 짐을 넣어두고 2년 동안 동생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농이며 소파며 모두 중고상에 팔고 버릴 건 버리고 최대한 짐을 줄여 대구에서 영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은 창문 새시 같은 것을 재처리해서 분쇄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남편과 저는 동생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육체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과 저는 요즘 장갑을 두 개 씩 끼고 마스크에 중무장을 하고 현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딸이 앞치마에 마스크를 하고 먼지 가득한 현장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퇴직하고 이만한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며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한 후에 정신 못 차리고 1학년 때 전공과목을 F학점 받았던 아들도 갑자기 바뀐 환경에 충격을 받았는지 복학한 후로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2학기 등록금의 3분의 2를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술도 잘하고 농담도 곧잘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술 한잔도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둘이 잘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막내 올케에게 밥도 얻어먹어야 하는 현실이 아무래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을 때까지 아득한 아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 일자리가 소중하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종일 일하고 나면 온 몸 쭈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2016년 5월이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그러면 최소한 동생네 집 곁방에서 살며 동생댁에게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되기에 눈 꼭 감고 참아봅니다. 어제는 동생과 올케가 다뤘는지 분위기가 냉랭하더니 기어코 오늘 아침에 올케가 친정에서 며칠 쉬고 오겠다며 나가버렸네요. 동생 내외의 불화도 꼭 우리 부부 때문인 것 같고 사사건건 눈치 보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껏 나름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나름 고급인력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친정 동생에게 얹혀 살고 있는 현실에 어이없다가도 평소 ‘피할 수 없으면 즐기’ 하며 초긍정적으로 살던 제 성격 덕분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작년 2월 말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찾아온 일이네요. 삶의 전쟁터에 내몰린 대한민국 50대 중반, 다들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Letter 4

휴대폰에 절을 하다



박종배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여보, 나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경남으로 출장 다녀올 거야.”

“언제라고요?”

“아, 내일하고 모레라니까!”

“이 양반이,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알아요?”

“내일? 내일이 무슨 날인데?”

이럴 수가 달력을 보니 출장을 가기로 한 날은 아내의 생일이자 할머니 제삿날입니다. 2주 전 쯤에 담당 팀장과 출장 일정 짤 때 특별한 일 없다고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와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20명이 넘는 인원을 인솔해야 되는 입장이니 출장을 취소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사정하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출장 다녀와서 내가 산소에 다녀올게.”
 “당신! 이번이 처음이 아닌 줄은 알지요? 출장이나 잘 다녀와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벌써부터 치매기가 있나봐.”
 어쩔거나 저는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때는 반주도 몇 잔 했습니다. 노래방에 가지는 일행들의 제의에 속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는 혼자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제삿날에 노래방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객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 탁자에 재떨이가 보였습니다.
 ‘다른 호텔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던데 여긴 아니네?’
 그렇다고 방안에서 피면 담배 냄새가 배이게 되니까 룸메이트에게 실례가 될 것이므로 저는 옷옷만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닷가 야경을 즐기면서 담배 한 대를 ‘스읍... 후...’ 아주 달게 피우고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라~’ 문이 안 열립니다.
 그제야 발견한 경고 문구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므로 베란다 출입 시 주의하십시오!>
 이런 제길, 휴대폰도 방에 두고 나왔으니 별 수 없이 룸메이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옵니다. 20분이 지나도 역시입니다. 30분은 지났을 것 같은데 감감 무소식. 옷옷은 걸쳤으니 상체는 건널 만한데 문제는 팬티만 입은 다리에 바닷바람이 몰아치니 닭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상님이 날 벌하시는구나. 이 사태를 어찌 해결할꼬...’
 그때부터 저는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제가 묵는 객실은 5층. 2층에 옥외주차장이 있어서 투숙객들이 차에 타고 내리는 게 보이는데 이 차림새로 소리 지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노래방에 몇 시까지 있을 거야. 혹시 3차까지



간 건 아니겠지?

점점 불안해졌고 그렇게 한 시간은 족히 흘렀나봅니다. 이제 체면을 따질 형편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주차장에 한 남자 손님이 차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이~~.”

다행히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베란다 문이 잠겨서 그러는데 프론트에 얘기 좀 해주실래요?”



“몇 호실인데요?”

“508호예요! 5백! 8호~!”

‘이제 살았구나’ 하고 종업원이 문을 따주러 오기를 기다리는데 옆방 불이 켜지더니 우리 일행 한 사람이 옆방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어? 과장님, 왜 그러고 계세요?”

“말도 마라, 여기서 얼어 죽을 뻔했다.”

그제야 제 꼬라지를 자세히 본 직원이 포복절도를 합니다.

‘으이구, 이 무슨 망신살이람~.’

잠시 후 호텔 종업원이 와서 베란다 문을 열어주기에, 저는 경고문 좀 크게 만들어 붙이라고 괜한 핀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켜보니 아내가 올린 사진 한 컷이 보였습니다. 아, 제사상 사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조부모 제사는 낮에 산소에 가서 간소한 제물을 차려 놓고 지냈는데 아내 혼자서는 산 중에 겁이 나서 못 가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기는 맘이 편치 않으니 혼자 제사를 지냈나봅니다. 자세히 보니 북어 놓는 방향도 반대로 되어 있고 과일 순서도 격식에 안 맞지만 뭐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휴대폰 사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생일날 밤에 외식은커녕 혼자 제사를 모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혼자 다짐을 해봅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 혹, 아내가 미울 때는 이 사진을 보면 미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담배부터 끊어야하겠군요.

Letter 5

결혼 이불의 추억



양희옥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33년 전 우리 동네 풍습은 딸이 결혼을 할 때 예단 이불과 신부 이불을 집에서 만들었다. 길일을 택해서 이불을 만드는 사람으로 복이 많고 아들이 많은 집 아주머니들이 초대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마루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울려 퍼졌다. 마당에는 명석을 깔아 놓고 한쪽에서는 목화솜을 펼쳐 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 목화솜을 속통에 넣고 바느질을 했다. 그 사이로 우리 어머니는 분주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단 이불 잘못하면 시댁에 흠 잡힌다고 바느질은 예쁘게, 솜은 넉넉히 넣어야 한다고 하시며 신부 이불에 행여 솜이 적게 들어가 딸이 추울까봐 두툼하게 솜을 넣으라고 당부하셨다.

부엌에서는 추수한 햅쌀과 분홍빛을 띤 풋 팥을 넣은 밥이 큰 가마솥에서 끓고, 작은 솥에는 들깨 토란탕이 부글부글 고소하게 끓었



다. 이불 두 채를 꾸미고 나서야 마당 명석 위에 빙 둘러 앉아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서 덕담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불 4채가 꾸러졌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신혼부부 이불 각 한 채, 또 여분의 작은 이불 한 채. 양단 이불로 색이 참 고왔다.

그 이불로 시집와서 10년 동안 시댁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분가를 했다.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 난방이 잘되고 침대생활을 하게 되니 그 이불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비좁은 장롱 안에 고이 모셔졌다. 그즈음에는 솜이불 한 채로 지퍼가 달린 편한 이불 두 채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다. 이웃들은 모두 그렇게 했지만 난 의미 있는 이불이라 그냥 장롱 속에 두고 가끔씩 여름 햇볕 좋은 날에 거풍만 시켰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시댁에 들어오면서 그 이불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받은 예단이 불은 덮지도 않고 그 고운 빛깔로 장롱에 모셔두고 계셨다. 아들이 많아 예단 이불이 많아서 내 것은 그냥 두었다고 하신다. 그렇게 고이 모셔둔 이불 두 채는 3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색깔이 고왔다.

버릴 수도 처분할 수도 없어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햇볕이 너무 좋아서 큰 맘 먹고 다시 뜯어서 꾸며보기로 용기를 냈다. 호청을 뜯고 보니 속통이 얼룩얼룩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옥상에 나무 자리를 펴고 솜을 넣어놓고 호청을 삶아서 풀까지 해서 옥상 줄에 널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뽕얀 호청 네 개가 빨래 줄을 가득 채우고 펄럭인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빨랫줄을 바라보니 지난 33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호된 시집살이 10년. 시아버지는 참 엄하시고 무서웠다. 분가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16년. 아이들 공부시킬 때 나도 참 열성엄마였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시댁에 들어와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호청에 풀을 먹일 때는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버석하게 말라버리면 다듬이질하기가 어렵다. 적당히 말랐을 때 걷어서 네 모서리를 잘 잡아 당겨서 반듯하게 해야 꾸미기가 쉽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 당기고 밀고 하여 사각형으로 잘 접어 광목천에 놓고 발로 밟고 다듬이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렸다. '똑딱 똑딱' 리듬을 타야 하는 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며 제법 리듬을 타고 재미가 있다. 어머니들은 그 많은 한을 이 방망이로 다스렸으리라. 두드리고 앉았으니 그냥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옥상에 널어놓은 솜을 뒤집고 잘 말려 놓으니 솜이 부풀어져 어떻게 속통에 넣을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남편과 맘을 뽕뽕 흘리며 이불 두 채의 솜을 속통에 넣는데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린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벗기지 말 걸 괜히 벗겼다는 후회를 했다. 내친 김에 이튿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여 호청 꺾매는 작업을 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두 채를 마무리했다. 풀을 덜 먹인 것은 바늘이 잘 들어가는 데 풀을 많이 먹은 것은 잘 들어가지 않아서 무척 힘이 들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드디어 완성했다.

시어머니 예단 이불은 꽃분홍색 바탕에 초록색 깃에 모란 꽃무늬이고 내 이불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깃에 공작새 무늬다. 뽕얀 호청과 참 잘 어울렸다. 너무 곱고 아름다웠다. 또한 내가 대견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작은 방 한가운데 이틀이나 모셔 두었다가 장롱 속에 들어갔다. 요즘처럼 편한 세상에 살고, 풀 먹이고, 다듬이질에, 바느질하는 아날로그 방법도 한번은 해볼 만했다.

Letter 6

영업사원을 일어서게 한, 밥 한 끼



김택현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업체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그 발주서를 보고 물건을 챙겨서 소형업체에는 납품을 해주고 대형업체에는 마트에 진열까지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햇수로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영업이란 일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실적이며 수금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아가며 현재는 팀장이란 직책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직업 특성상 납품을 하러 나오면 때 맞춰 끼니를 챙겨 먹기가 참 힘들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 차 안에서 김밥으로 대충 때우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챙겨 먹기가 힘들어 거의 굶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꼭 점심시간 때쯤 도착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는 제 회사 물건을 받아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업체로 직원 두세

명을 두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2명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영세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발주 받아서 방문했을 때 너무 적은 발주 양에 그다지 기분도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는 날이라 짜증도 더했습니다. 물건을 내려주고 한눈에 봐도 제 부모님 연배로 보이는 분들께서 “밥때인데 식사라도 하고 가요” 하시며 저를 붙잡았지만 초면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다음 일정도 급하고 해서 “아뇨, 괜찮습니다” 하고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를 막 출발시키려는 순간, 아까 그 어른님께서 급하게 나오더니 저에게 구운 계란과 음료수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면서 “비도 오는데 운전 조심하구, 안전벨트는 꼭 하고 다녀요. 그리고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한참 동안이나 일찍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그 업체를 일주일에 서너 번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곳 사장의 아버님, 어머님이란 사실과 요즘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따스한 가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점심을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워낙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끼니 때 회사에 방문하면 웬만해서 그냥 안 보낸다면, 먹다보면 경쟁업체 직원들도 서로 한 테이블에서 밥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쯤에 도착했는데 식당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물건 내려왔으니 그만 가볼게요” 하면서 식당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인사를 했는데, 아! 그곳에는 뚝배기 째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와 제가 평생

못 잊고 있었던 살아생전 제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호박잎쌈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밥 먹고 가라는 아버님의 말씀에도 민폐가 아닐까 싶어 계속 거절했는데 역시나 그날도 아버님께서 밥 한술 뜨고 가라며 성화셨고, 이미 제 맘을 알아채셨는지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밥상 한편에 제 밥을 수북이 떠 놓고 수저며 모자라는 반찬까지 다시 놓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바빠도 될 수 있으면 끼니는 거르지 말고 챙겨 먹고 다녀. 이렇게 한술이라도 뜨고 가면 나도 맘이 편하고 얼마나 좋은가.”

거의 반년을 식당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다는 어머니의 손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집 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욱 그 맛이 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추랑 호박이랑 상추며 암튼 내가 다 약 한번 안 치고 직접 키운 거야. 앞으로도 오면 밥은 꼭 먹고 가.”

가족회사인지라 안 좋은 선입견으로 봤었고, 처음 거래 시 물량이 적다며 투덜거렸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거래를 해 오면서 단 한번도 대금결제를 미루신 적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밥을 얻어 먹다보니 죄송한 마음이 들어 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를 모아서 드리려 했더니, 됐다고 강하게 거절하시는지라 하루는 큰맘 먹고 “저도 염치가 있지 매번 어떻게 얻어만 먹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앞으로 밥 못 먹어요” 말씀드렸더니 못 이기시는 척 받으시더니 요즘은 아예 김치며 밀반찬까지 따로 챙겨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진정한 어른이라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마 삼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도 애써 매장에 진열해 놓은 저희 회사 제품을 경쟁사가 뒤집어 놓고 자기네 제품으로 다시 재



진열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일은 영업사원들 사이에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상도를 지키느냐는 영원사업의 인성이겠지만, 암튼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뒤집은 후 자리를 뜬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방문을 하면서 그 광경을 다 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사장실에 불려갔고 상황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 즈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장님도 저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껴 납품 갔던 날 아버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방문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의 그 경쟁사 직원이 딱하니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게. OO대리도 때마침 밥때 도착을 해서 내가 한술 뜨고 가라고 잡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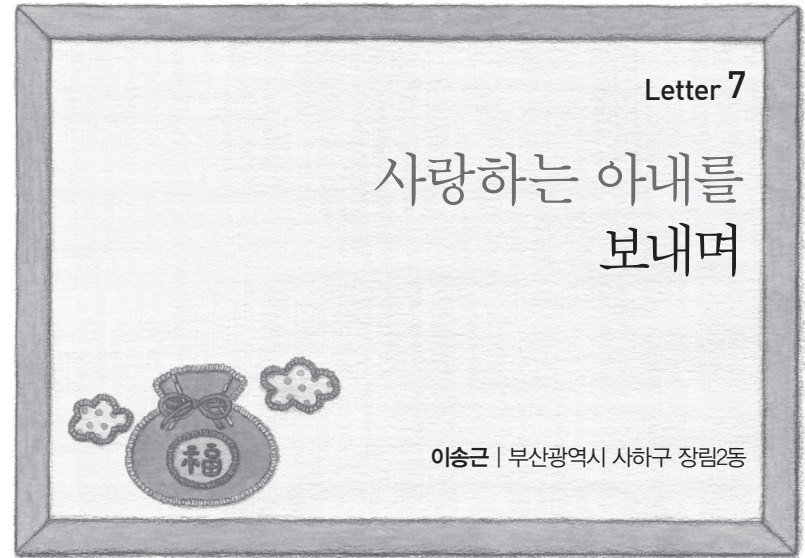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몇 수저 뜨자 아버님께서 “자네들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나? 식구란 한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야. 어차피 같은 식구인데 서로들 도와가며 살아. 톱니바퀴도 서로 맞물려야 돌아가듯이 인생사도 다 그런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때문인지 회사를 나서면서 경쟁업체 직원이 저에게 조만간 술 한잔 하자는 말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힘들어도 참아. 참다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인생의 순리야” 하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주셨는데,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창피함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김 팀장, 평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팀장으로 자네 참으로 열심히 살았네. 조금만 더 힘내서 사장까지 해야지.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어딜 가든 끼니는 꼭 챙기고 다녀!”

제가 지금 팀장이란 직책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건 그날 어머님의 된장찌개와 호박잎쌈 그리고 경쟁사 직원과 먹었던 점심 한 끼의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만난 두 번째 가족. 이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여 보! 당신이 떠난 지 49일. 난 지금이라도 당신이 문을 열고 금방 방으로 들어올 것만 같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당신이 옆에 있는 걸로 착각하다가 당신의 빈자리를 보고 한없이 울곤 한 다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यो.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가슴이 시리고 찢어지는구려. 애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대오. 이제 먹고 살만큼 돈도 벌어냈는데, 좋은 데 여행도 한번 못가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나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취장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아이들과 나를 더 걱정하던 당신, 잠도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45일이나 보내야 했던 당신, 3번 뼈가 신경을 누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내야 해서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조차도 안타까워했던 당신. 당신이 없으니 내 가슴에 구멍이 크게 나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대요.

애들 어릴 적,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지. 다리도 쪽 펴 수 없는 비좁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될까 무서워서 밤새 부채로 연탄가스를 부쳐내며 살던 시절, 아침에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는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사람들은 눈탱이 벌게 가지고 왔으며 나를 질책했지.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고 아이가 보고 싶어 피곤한 줄 몰랐어. 그게 행복인 줄 그땐 몰랐대요.

연산동 살 때 나는 일에 지쳐서 자는데, 둘째가 일어나 내 머리가 요강인줄 알고 깔고 앉아 오줌을 싸도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곤 했었지. 첫째가 다른 큰 집 거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안나오려고 울고불고 떼쓸 때, 우리 부부 서로 얼굴 보며 두 손을 붙끈 쥐고 잘살아 보자고 서로 속으로 다짐하곤 했지.

너무 가난해서 대전에 계신 엄마한테도 6년이나 소식을 끊고 지냈는데, 동생 내외가 찾아와 결혼할 거라고 얘기할 때 당신의 난감해 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오. 우리도 결혼식도 못하고 살던 때였는데 말이지.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장모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미누라는 공장 나가 돈 벌어 오는데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논다”고 하시면, 정작 나는 서운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날 위로하며 토닥거리 주었지. 그땐 능력 없고 무능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어.

그래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커주었지. 동서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싼 값으로 사던 날, 아침에 버스 3번 갈아타며 출근하는 나를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당신 출근도 편하게 할 수 있겠다’면서 기뻐하던 당신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여보, 94년에 공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 당신 참으로 좋아했지? 좋은 분들 만나 공장은 날로 성장했고 나는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당신은 경리부 과장으로 IMF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번창하여 뒤도 안보고 밤낮 없이 신나게 일을 참 많이 했지. 여보, 회사 이름을 ‘대신’이라고 지어놓고 큰 산처럼 되자며 당신이 한 말 기억나오?

아이들이 모두 잘 성장해 큰애는 유학도 다녀오고, 미국 사위도 보고, 손자는 또 얼마나 예쁜지, 처음 태어난 손자 서로 보겠다며 기뻐하던 모습 정말 잊을 수가 없대요.

여보! 그런데 장모님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리 빨리 따라갔소. 당신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손자 너무 보고 싶어 한국에 나오라고 하고는 밤새 기다리던 당신이 정작 딸과 손자가 오자 사흘 만에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했지.

그렇게 건강하던 당신이 등뼈 3번이 함몰되어 내려앉아 신경을 누른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소. 병원에서 안정남 씨 보호자냐고 전화가 온 날, 진지한 목소리로 ‘암이 심각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한 날,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충격에 회사에서 병원으로 오는 도중 어지럼증에 쓰러지고 말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밖으로 내보내고는 나한테 “부인이 체장암에 걸린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지. 앞으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당신을 위해 나는 당신의 남은 생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간병인 안 쓰고 내가 직접 간호했지.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란 것도 모르고, 나보고 고생한다며 “다 나오면 잘해 줄게~” 하면서 머리를



만겨주던 당신. 등뼈가 아파 눕지도 서지도 못하던 당신...

사랑하는 여보! 이제는 먹고살 만한데, 둘째만 결혼시키면 우리 여행 다니자 하더니, 제대로 여행도 한번 못 해보고 어디로 갔소!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떠난 당신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허망한지 정말 몰랐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훌쩍 가 버린단 말이요.

예전에는 연휴가 그리 좋아 당신과 함께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즐거워했지. 여보! 그런데 지금 나는 연휴가 싫어졌소.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왜 그리도 연휴가 많은지. 연휴 때는 의사와 간호사들 대부분이 출근을 안 하다 보니 당신의 통증이 심해지면 어찌할 바를 몰

라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당직 간호사들은 당연한 듯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참으로 어찌나 서운하던지.

당신이 아주 독한 치료 약을 먹고 인사불성되어 헛소리를 하고 땀을 흘리며 바로 죽는 것 같아 긴급히 의사 호출하기를 여러 번 한 적도 있었지. 보다 못해 약을 좀 쉬었다 먹이자고 의사한테 말하니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그나마 최고로 좋을 때예요”라고 말하고 획 가버리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기에 “이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퇴원시키느냐”며 울며불며 매달려도 강제 퇴원을 당하다 시피 할 상황이 되었지. 퇴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얼굴로 “나 병원에 있으면 안 될까?” 하고 애원을 하던 당신. 내가 당신을 위해 아무 것도 도움이 못 되는 것이 참으로 죄스럽고 가슴 아파, 병원에 대해 증오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퇴원하고 앰블런스 타고 집에 오는 날,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약간은 들뜬 얼굴이었어. 하지만 그리도 집에 오고 싶어 했던 당신이 집에 온 그날부터 고통은 더 심해졌고 진통제는 효과가 없었지.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작은 방에서 두 딸과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 때, 당신은 아이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나를 책망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걱정했었지.

여보, 미안하오. 추석연휴가 끝나고 병원에 가려고 앰블런스를 부를 때 “여보, 나 또 집에 올 수 있을까? 이제 집에 못 오겠지?” 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당신. 무슨 소리냐며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애써 태연한 척했던 나는 짐을 들고 나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너무나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 없어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어요.

조금만 내가 옆에 없으면 어디 갔냐며 나를 찾던 당신. 병원에 도



착하니 말기암 환자라며 쑥덕대던 간병인들. 당신이 너무 쇠약해져서 밤새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해야 하는데 당신은 아프던지 말든지 자리 깔고 누워 자던 간병인. 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말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를 말리던 당신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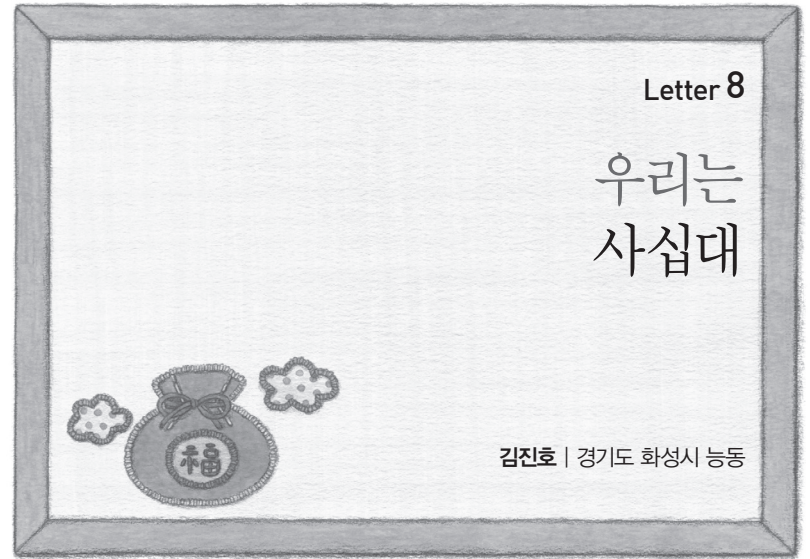
누구는 암이 걸려도 10년은 잘도 산다는데 당신은 발병 후 3개월. 난 아직도 너무 애석하고 분하고 원통하오. 요즘은 당신이 너무 보고파 길을 가다가도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차를 돌려 따라가곤 한다오. 집에서는 당신이 쓰던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를 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산 건데 하며 회상해보고 당신의 옷이나 신발을 들고 당신의 체취를 맡으려고 코에도 대보고 당신 사진을 보며 한없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한다오.

여보! 여보! 이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흐르는구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뻔 몰랐다오. 이제 당신이 없는 지금 이런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신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며 애석하기 짝이 없소.

암 판정받고 3개월, 그 모진 고통 견디다 가버린 당신. 당신은 우리 집안의 훌륭한 며느리였고, 나의 좋은 아내였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엄마였소.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오. 표현력 없는 내가 처음이자 당신도 없는 데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요.

여보! 이제 당신을 보내려 하오. 당신은 우리 가족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남편이며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다오. 당신도 나의 영원한 아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야.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고생 없고 편안한 천국에서 고이 잠들기를 기원합니다.

- 당신의 남편 이송근



어 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일이라서 다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이 모임만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었던지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전원이 참석을 했더군요.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에 만나서는 술도 진탕 마시고, 여자 이야기도 많이 하며 흥청망청하다 모임이 끝났고, 30대까지만 해도 결혼 이야기며, 육아 이야기, 아내 험담까지 유부남이 된 나의 신세 한탄도 장난스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8명에서 소주 5병을 놔두고 쳐다만 보며 심각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뭘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죠. 더 늦기 전에 자격증이라도 따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도 치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나름의 고충도 들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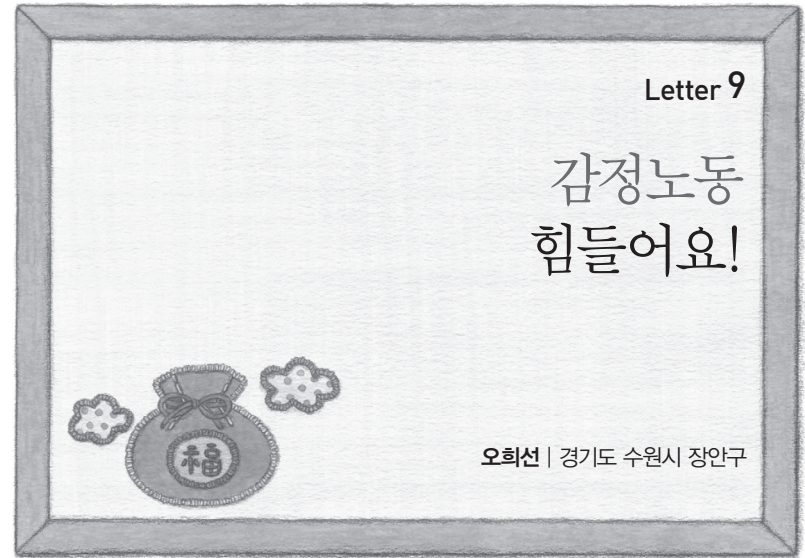
40대가 딱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도 ‘이제 내 일이 맞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시기요. 다들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농담으로 “우리끼리 회사나 만들까?”라고도 해봤지만 분위기는 이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들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는 친구들은 술을 못 마시고 안주도 가려서 먹게 되었고요. 힘차게 30대를 살아왔지만 앞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에게 맞는 마지막 직장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마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는 상의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며 미운 눈 흘김을 하네요. 그러면서 “어머, 웬일로 술 냄새가 안 나? 자기 그 모임 가면 술 엄청 먹고 왔잖아” 하더라고요.

40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나이겠지만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환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인데 세상 모르고 순진하게 살던 우리가 이제 점점 세상에 치여 지치고 기운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지친 친구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친구들과 저도 이 터널을 헤쳐 나가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응원해 주실 거죠!



“**동** 네장사 하면서 뭘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어요?”
삼십 분을 작은 옷가게에서 이 옷 저 옷 입어 보던 중
년여성이 제게 한마디 쓰아붙이네요. 저는 최대한 공손히 대답해 드
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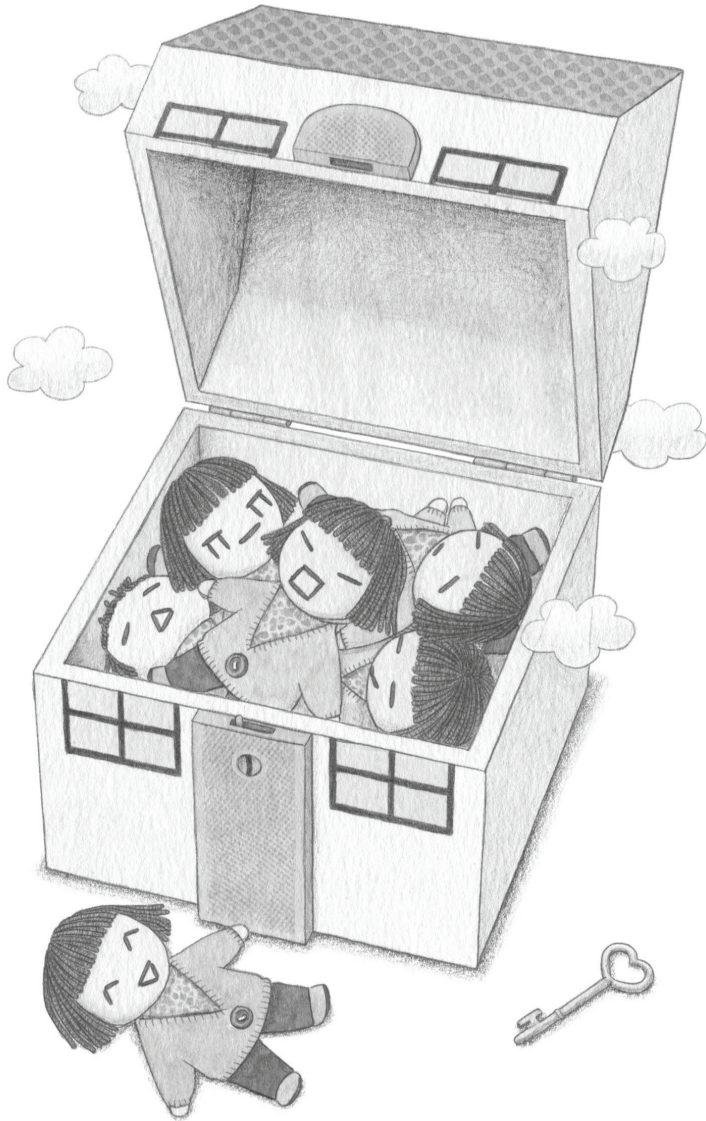
“저희 매장은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손님께서 기분
좋게 사주시니 조금은 깎아 드릴게요.”

썩썩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10% 정도 할인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디건은 68,000 원인데 할인해서 61,000 원에 드릴게요.”

“에고~ 천원은 또 뭐야! 고깃 거 빼놓고 생색은, 그냥 5만 원만
받아!”

오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계산대 위에 던져놓네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습니다. 마진율이 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배씩 되는 장사도 아니고 박리다매하는 큰 매장도 아니어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그 손님께 다시 말씀드렸지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가격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옷을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 말에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그 손님은 다시 돈을 챙겨 놓더니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한마디 하시네요.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무서운 게 없나 봐!”

그 손님이 다녀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숨긴 채 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옷도 입혀 드리고 신발도 신겨 드리는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가끔 몰지각한 고객들은 마치 이런 서비스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막말과 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게 참 씁쓸한 일입니다.

또 한 번은 손님 한 분이 사 간지 3주나 지난 니트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불량 건인가 싶어 조심히 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김칫국물 같은 오염이 묻어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불량인 부분은 없는 거 같아 손님께 물었습니다.

“고객님, 옷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보풀 안 보여? 내가 백화점에 가서 니트 많이 사 입어 봤는데 이렇게 보풀 나는 니트는 처음 봤어. 못 입겠으니 환불해줘. 시장 물건 티 나서 내가 보세 옷 안 입는데, 나 참!”

이러시는 겁니다. 글썩요. 정말 제가 파는 물건이 시장 물건이어



서, 백화점 물건이 아니어서 품질이 떨어져 보풀이 난 걸까요. 일반적으로 요즘 보세옷도 고급 원사를 많이 사용하고 혼용율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옷이 많습니다. 저 또한 동네 장사다보니 되도록 좋은 옷을 사입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은 마감 처리가 제가 생각해도 고급 브랜드 옷에 처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 땐 저도 불량 건으로 인정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 간지 3주나 지났고 많이 입은 흔적이 있는 옷을 불량 건이나 수선 건이 아닌 이유로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해드릴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죄송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계산대 위에 있던 가위로 옷을 찢기 시작하더니 제 면전에 던지더군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손님, 많이 지나치시네요. 손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이 옷은 당연히 보풀이 나는 원사이기도 하고 옷이 맘에 안 드셨다면 바로 가지고 나오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많이 입은 옷을 환불해 달라니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어느새 눈엔 눈물이 맺혀 앞이 보이질 않았지만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어디 두고 봐! 젊은 게 동네장사 하면서 이따위로 해? 나 참!”

약담과 난도질한 스웨터를 뒤로하고 그 손님은 나가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서러움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여성시대 청취자 분들, 요즘 동네에 예쁜 옷가게들 많이 있지요?

가끔 손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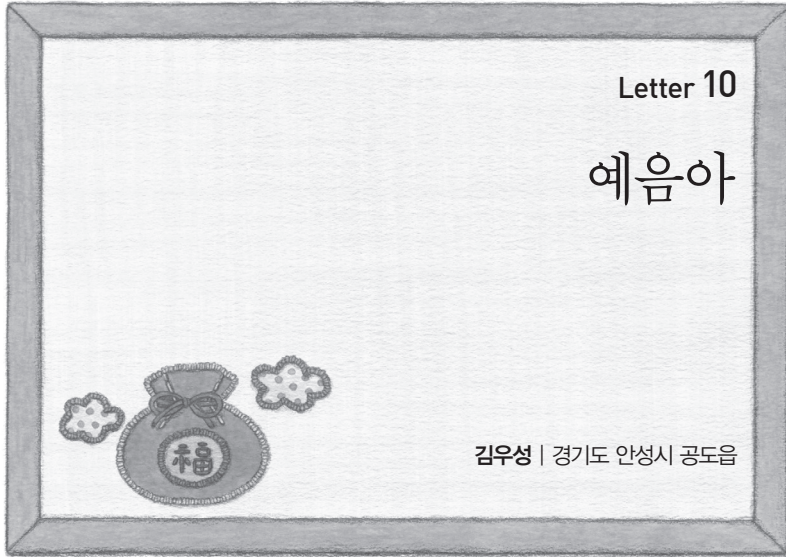
“나도 이런 옷가게나 했으면 좋겠네. 매일 예쁜 옷 입고 설렁설렁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옷가게 사장님들이 밤 시장에서 수천 개 매장을 돌아다니며 본인 매장에 맞는 옷들을 사입하느라 다리가 통통 붓고, 어깨에는 커다란 사입 가방을 둘러메고 양손으로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을 거친 후에야 매장 쇼윈도를 빛낼 수 있습니다. 밤 시장 사입 후엔 만나질 정도 스팀으로 옷을 다리고 마네킹에 옷을 입혔다 벗겨다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매장 정리가 끝이 나지요. 손님들 응대에 식사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고 많은 스트레스로 속병 없는 분 별로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자신의 감정을 저희들에게 무방비상태로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로 우리는 많은 것을 지나칩니다. 진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마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고객들의 매너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시장 본 과일을 털어주고 가시는 손님들도 있고, 사 간 옷을 잘 입었다며 인증샷을 찍어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을 하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일들도 있기에 오늘 하루도 버티지 않을까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우리처럼 서비스 직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파이팅 한 번 외쳐 주실래요? 오늘도 파이팅! 할 수 있게요.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47세 남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한 원아를 유치원 차에 태우기 위해 아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 유치원에 가장 먼저 등원하는 예음이입니다.

7시 20분, 예음이가 등원 차량을 타는 시간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엄마를 잃고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시름시름한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직장에 나가시면 시름거리는 할아버지가 돌보아줄 수 없어 6살 아이로서는 꼭두새벽에 해당하는 이른 시간에, 때로 아침밥도 거른 채, 노란색 차 타고 이렇게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도 예음이는 항상 웃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인사하고 안전벨트도 스스로 하지요.

예음이는 꽃을 좋아합니다. 차 한 대 간신히 오가는 논둑길 사이를 300여 미터 들어가야 나오는 예음이네 집. 논둑길 사이에는 그야말로

로 봄 여름이면 채송화와 봉선화도 한창이고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엔 코스모스가 형형색색으로 차바퀴를 붙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 후 예음이는 작은 손에 언제나 풀과 함께 무더기로 쥐어진 꽃다발을 내밉니다.

“이거 원장님 주는 거예요?”

“네!”

“예음이, 밥 먹었어요?”

“아뇨. 오늘은 늦잠 잤어요.”

“그럼 원장님도 배고파. 빵집 가자.”

“와~.”



“뭐 좋아, 예음아?”

“저기 피자 같은 거요. 나 치즈 좋은데...”

“원장님도 치즈 좋아해.”

“저는요 응~ 응~ 햄도 좋아요.”

“우와, 햄까지?”

그렇게 지난 10개월, 빵집으로 김밥집으로 이곳저곳 예음이와의 아침 끼니 데이트를 다니며 둘만의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예음이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원장님, 노래 틀어주세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다운받아 왔지!”

USB를 꽂고 노래에 손가락 장단을 맞추며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음이가 차분히 노래만 듣습니다.

“예음이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

답변이 없습니다. 뭐 컨디션이 별로려니, 애기라도 당연히 그런 날도 있으려니 했습니다. 예음이는 엄마 자리에 계신 할머니도 좋아 하지만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비록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할아버지는 힘을 다해 예음이가 좋아하는 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가로 세로 3미터가 채 안돼 보이는 꽃밭에는 언제나 계절에 며칠 앞선 싱싱한 제철 꽃들이 가득합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은 넓고 얇고 작지만 언제나 예음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7번 틀어주세요.”

언젠가부터 예음이가 차를 타면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에~ 예음이는 7번쟁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주고 싶어〉, 7번 곡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 모두 주고 싶어/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싱그러운 나무처럼 쭉쭉 자라서/너의 꿈이 이뤄지는 날 환하게 웃을 테야/해님보다 달님보다 더 소중한 너/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이 세상의 좋은 것 모두 드릴게요/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싱그러운 나무처럼 쭉쭉 자라서/나의 꿈이 이뤄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이 세상의 좋은 것 모두 드릴게요/엄마 사랑해요〉

예음이가 항상 듣고 싶어 하는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 나이 47세에도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엄마 없는 예음이는 왜 하필 이 노래만 틀어달라고 하는지 공연히 마음이 아파 예음이의 눈치를 수시로 봅니다. 그저 노래가 좋아 선택한 곡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몇 주 전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예음이 데리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새벽부터 걸려온 예음이 담임선생님의 전화.

“무슨 일이 있네요?”

아직 한 번도 결석 한 적 없는, 아니 아파도 피곤해도 결석할 수 없었던 예음인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네요. 식구가 전부 서울에 병원 가야 해서 예음이 돌봐줄 분이 없어서 예음도 데려가신대요.”

예음을 다시 만나게 된 건 6일 후였습니다. 예음이는 그리도 좋아하던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덤덤히 제 뒷자리에 앉아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아이라지만 무어라 위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다 “예음아...” 불러봤습니다. 부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예음이의 볼을 타 내리고 있는 것은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늘은 이 작은 아이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도 어린 나이에 잔인하게도 빼앗아 가는지... 보기에 도 야속한 하늘을 외면하며 저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음이가 이사를 갔습니다.

“예음이 이사 가니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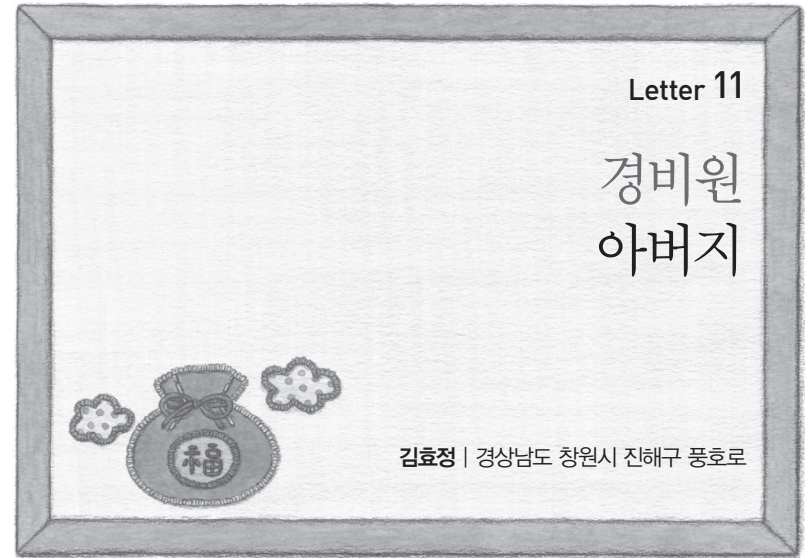
“몰라요.”

씨익~ 웃으며 대답하는 예음이의 얼굴이 슬픔니다. 아니, 이렇게 예음을 보내야 하는 제가 슬픔니다.

공개수업을 하던 날, 아무도 자신을 보러 유치원에 오실 분이 없다고 말하는 예음이에게 “이따 교실로 원장님이 예음이 보러 갈 거야. 원장님은 예음이란 쳐다 볼 건데~” 하니 제 말을 철석같이 믿던 예음이. 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계속 제 발길에 눈을 따라 붙이던 예음이. 눈이 마주치면 작게 손가락 하트도 만들어주고 손을 흔들어주던 우리 예음이...

‘예음아, 어디에서든 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만날 거야.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편안함이란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아픈 일 있어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겠다는 생각 그것이 편안함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괜찮아’ 하면 일어설 수 있거든. 원장님은 사랑하는 예음이한테 그 마음을 꼭 주고 싶구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 같은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마음을...’

아직도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가슴이 사무치네요. 부디 예음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빌어 봅니다.



저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오늘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했듯 저의 아버지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젊은 나이에 도시로 나와 먹고살아야 했기에 공장에 취업 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근면, 성실함 하나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가정보도 이루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희 집 안방 벽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던 표창장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렇게 한 공장에서 꾸준히 한길을 걸으며 일하셨던 아버지에게 2년 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경기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당연히 나이 많은 아버지는 명예퇴직 1순위였습니다. 한 회사만 꾸준히 다녔던 아버지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집 근처 가까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다며 설렘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아버지 취업했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허허허.”

“아버지,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 잠도 못 자고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은가 보던데...”

“놀면 뭐하니? 운동 삼아 다녀보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가 집 근처 경비원으로 일하신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 주민들이 내놓은 스티로폼 상자를 정리하여 끈으로 다 묶어 놓았는데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한 분이 생선 포장지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버지가 묶어 놓았던 끈을 가위로 푹푹 끊어서는 깨끗한 스티로폼 상자만 골라서 가져가더군요. 물론 스티로폼 상자는 다시 온통 흐트러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주민이 한 것이라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아버지는 다시 스티로폼 상자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날은 경비실 안에서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주민 한 분이 지나가기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례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쳐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무거운 짐도 있으면 좀 들어서 엘리베이터까지 옮겨 주고”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멍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허허허 웃으면서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자신이 떳떳해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주민과의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분신자살한 경비원 이야기가 재조명됐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

송을 보면서 분노와 안타까움 등 여러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집 앞 마당을 지키는 강아지에게도 고맙다며 맛있는 간식과 무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물며 사람에게 어찌 그리 인간 이하의 대우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택배 받아주기나 주차하기 등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님에도 당연하게 경비원의 업무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고, 법적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법적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면 파리 목숨보다 더 쉬운 해고로 인해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주민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네, 네”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너희 오면 주려고 모아뒀어” 하며 주민들에게 받은 피로회복제, 식혜, 사이다 등 여러 가지 음료를 건네며 “아버지는 음료수 안 좋아한다. 너 가져가서 먹어” 하십니다. 세상은 아직 훨씬 더 따뜻하고 살맛 나는 세상인가 봅니다.

이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고 힘든 일들을 뒤에서 묵묵히 하고 계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단순히 관리비에서 인건비 빠져나가는 우리가 고용한 머슴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을 더 살기 좋게 해주시는 분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계신 경비원들도 다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일 테니까요.

여성시대 열혈 청취자인 우리 엄마, 아버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혼한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알뜰살뜰 안 입고 안 드시며 대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애교 없는 딸이지만 방송을 통해 마음 전해요. 엄마 아버지,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etter 12

경비원인 나의 하루



유준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출 근하여 조회를 마치면 먼저 단지 안 청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을날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낙엽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운치가 있으면만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또 겨울이면 눈과의 전쟁이다.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하루종일 눈을 쓰느라 어깨와 팔목이 아프다.

아침나절에 청소를 끝내고 초소로 돌아와 1회용 커피 한 잔에 몸을 추스르고 나면, 오전 순찰시간이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서면 택배 기사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다. 청소나 순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받아둔 택배가 사라지기도 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만 얼마 후 택배 주인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옆에 메모지와 필기구가 있으니 '가져갑니다'라는 메모 하나 남기면 참 좋으려만 그것까지 생각해주는 주민은 없는 것 같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장이다. 정해둔 요일에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우리는 요일이나 시간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나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제대로 구분해서 담아내놓지는 못한다. 수시로 재활용품 수거장에 들락날락하며 정리와 정돈을 해야만 한다.

12시와 13시까지 중식시간이 있고, 18시와 19시까지 석식, 자정 넘어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데 이걸 다 합한 6시간은 무급이다. 무급인 휴식시간이 진정 내 시간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냥 대기시간으로 여겨질 뿐이다. 어느 때고 주민의 호출이나 일이 생기면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 경비원의 책임 아니겠는가!

지금은 철이 지나기는 했지만, 잡초 제거와 수요일과 목요일 화단에 물주기도 경비원의 몫이다. 또, 단지 안에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등교시간에는 교통지도 40분도 경비원의 일에 속한다. 어느분의 주장인지는 몰라도 등교가 없는 방학기간에도 교통지도 시간은 변함이 없다.

단지 안 불법 주차단속도 경비원의 일이며 겨울이면 제설작업이 또 경비원을 기다린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관리 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내무사 열'이다. 가전제품 폐기물도 주민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 오는 것은 무리다. 이 역시 경비원이 대신한다.

나는 아직 초보 경비원이다. 손에 익은 선배들보다 상황 판단이 느릴 수밖에 없다. 정신없이 뛰다보면 어느덧 어둠이 찾아든다. 저녁 식사는 옛날 신병훈련소에서 먹던 것처럼 번개처럼 후다닥 먹어치운다. 식사하는 것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현관이 근무지인 만큼 지나는 입주민들과 바로 눈이 마주친다.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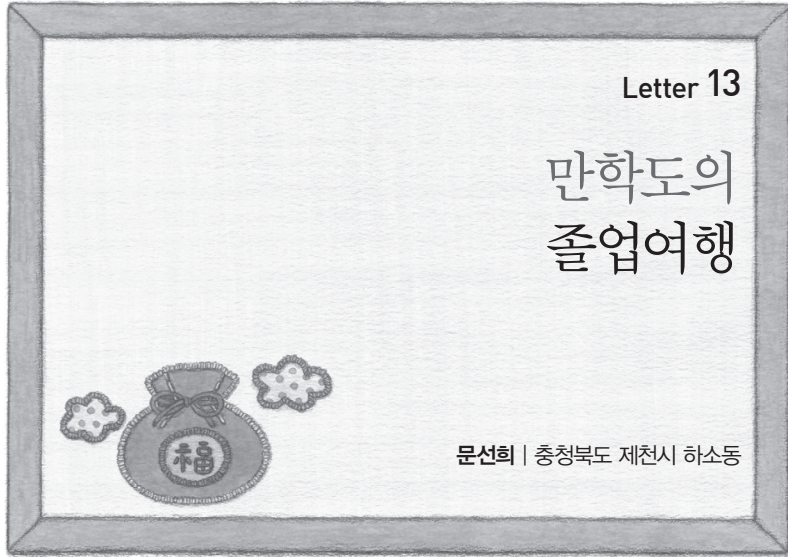
먹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허겁지겁 저녁식사가 끝이 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온다. 음식물쓰레기 통은 지지분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 달갑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세척까지 해야 일이 마무리된다.

그 뒤, 초저녁 순찰을 마치고 나면 자정까지는 앉아 있는 시간이 난다. 자정이 넘어 순찰 한 번 더 마치고 돌아와 아주 작은 탁자와 의자, 초소형 냉장고 하나가 다 차지해버린 좁은 공간. 거기 있는 고물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좀 붙여 보려 하지만 새벽 찬바람을 헤치고 순찰을 다녀온 탓에 쉽게 잠이 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며 지나간 하루를 정리해보는 그냥 마음 편한 시간이다.

몸은 힘들었는지 몰라도 마음은 무척 가볍다. 하는 일은 많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며 칠십이 다 된 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곳과 또 일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큰 축복이라고 여겨진다.

유치원에 가는 꼬맹이들이 인사하며 손을 흔들며 주고 간다. 해맑은 모습들이 머리에 박힌다. 여름날엔 땀을 흘리는 나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건네주시는 아주머니들,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도 나눠 주신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뜨끈한 커피 하나를 식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두 손으로 감싸서 주신다.

모든 분들이 다 내 가족 같다. 이제 자정도 많이 지났다. 가족 같은 우성아파트 217동 주민 분들 모두 다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해 본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작년부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학도죠. 제 과가 사회복지과라서 저 같은 만학도가 다른 대학보다 많은 편입니다. 2년제 전문대학으로 지금은 졸업반입니다.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같은 반 언니, 동생들과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대부분 50대들이고 가장 어린 친구가 마흔둘입니다. 그러니 아줌마 대학생들의 졸업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대학생이나 20대 대학생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화제는 당연 기말고사 잘 봤냐였고, 킨닝하다가 교수님께 들켜 킨닝지 뻘긴 이야기, 옆 사람한테 보여 달라고 하다가 교수님께 눈총 받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재미는 일상에서의 일탈이죠. 들

뜬 마음으로 부안 변산국립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전주에 들러 비빔밥 축제장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드디어 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은 여러 번 봤지만 해 지는 모습을 그렇게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라 더욱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준비해온 고기에 산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과 산터덕, 그리고 남편 몰래 챙겨온 와인까지 너무나 근사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날 서둘러 아침식사를 하고 변산국립공원을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을 탔는데, 약간 낡은 배라 살짝 실망을 했는데 선장님이 틀어주는 음악이 강남 유명한 커피숍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폭 빠져서 음악과 자연과 하나됨을 느꼈다면 믿으시겠어요?

파도가 찰랑거리고 빨간 등대, 하얀 등대, 그리고 까만 채석장이 보이면서 크고 작은 섬들이 파란 바다와 어우러져 바다 위 카페에 와 있는 기분에 우리 모두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있었습니다.

다음 코스로 내변산 주차장에서 한 시간 반쯤 올라가서 직소폭포를 보았습니다. 긴 물줄기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직소폭포를 보고 오는 동안 장 운동이 제대로 되어 일주일째 변비로 고생하던 언니가 숙변을 처리하고 곰소항 젓갈축제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회를 저렴한 가격에 먹고 나오는데 마침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있어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퀴즈도 풀어 상품으로 멸치액젓도 타고, 곰소 천일염을 한 포대 받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았는데도 흥이 사그라지지 않아 친구 중 하나가 10센터



미터 높이의 하이힐을 가져왔다며 나이트에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변산에는 나이트가 없어 우린 한 시간 반 거리의 전주에 있는 나이트에 가서 놀았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밤 열시에 밤안개 자욱한 바닷가를 달려 전주 모 나이트에서 두 시간 정도 놀고 다시 새벽 한시에 안개가 짙게 낀 바닷가를 달려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두시 반.

저요, 이제와 얘기지만 운전하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섯 명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눈에 어찌나 힘을 주고 운전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찍 숙소를 빠져 나와 바닷길이 갈라진다는 하섬으로 출발했

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얼마나 잘 짰는지 한 달에 두 번 갈라진다는 그날을 딱 맞추어 간 겁니다. 바닷물이 빠진 뒤에 물이 살짝 고여 있는 곳마다 고동이 얼마나 많은지, 또 바위를 살짝 들면 손바닥만한 꽃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겠어요. 비닐봉지를 구해서 열심히 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처음 보고 갈라진 바다에서 뭉가를 잡아보기도 처음이니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잡아온 고동을 삶아 까먹으며 왔습니다.

6명의 이준마 대학생들의 2박 3일 졸업여행은 너무도 재미있었는데 마땅히 자랑할 만한 곳이 없어요. 맛난 것 많이 먹고, 실컷 구경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경비를 정산해보니 1인당 10만 원씩이나 남았답니다. 완전대박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요. 강의 시간에 한 언니가 교수님께 살짝 여행 갔던 걸 자랑했는데 반 친구들이 알게 되어 눈치를 얼마나 받았는지, 오늘 미안한 마음에 반 전체에 피자를 시원하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여행을 졸업 전에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20대에 하지 못한 것을 40대 후반이 되어서 하는 이 기분 남들은 알려나요? 나이를 초월한 늦깎이 대학생으로 졸업 후 뭘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늦게 배운 만큼 젊은 열정에 뒤처지지 않고, 원해서 하는 만큼 밤새워 공부하는 것도 정말 즐겁습니다.

거기다가 잊지 못할 졸업여행이라는 진한 추억도 만들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제게 남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성시대에 이 사연이 방송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할 거예요.



2015년에는 좋은 일들만 함께 하기를

김옥정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To. "여십시대 양희은,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



여십시대 애청자 충북 오창에 살고 있는 김옥정입니다.

저희는 일곱 가족이 한지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부모님, 저희부부, 자녀 고2딸, 고1아들, 여섯살 딸)

저희 부부는 둘다 돌아온 성글로 힘든 일을 겪고 난후

초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모님도 너무 좋시고 가슴으로 품은 사랑스런 딸과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 할 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속하기를 두아이만 키우면서 행복하게 일곱달공

살지고 했고 남편이 수술을 했지만 11년 만에 운명적으로
막내딸 예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천명중에 한명 있을까 팔까 라는 거적으로 태어난 "복령이
예원"은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조용러던 우리 집을 들었나뵈다할 정도로 애교도 많고
행복바이러스 입니다... 칠십 평생 이렇게 행복한 지 없으시는
우리 아버님, 매일 매일 막내손녀 때문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직장생활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농사도 지으시고 집안일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 할 뿐입니다.

큰딸 서현이는 남편의 사망실패로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혼자서 공부를 하여 밤에서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아들 선물하는 운동을 하여 힘들다면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내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남편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하루라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으며 담배도 많이 피워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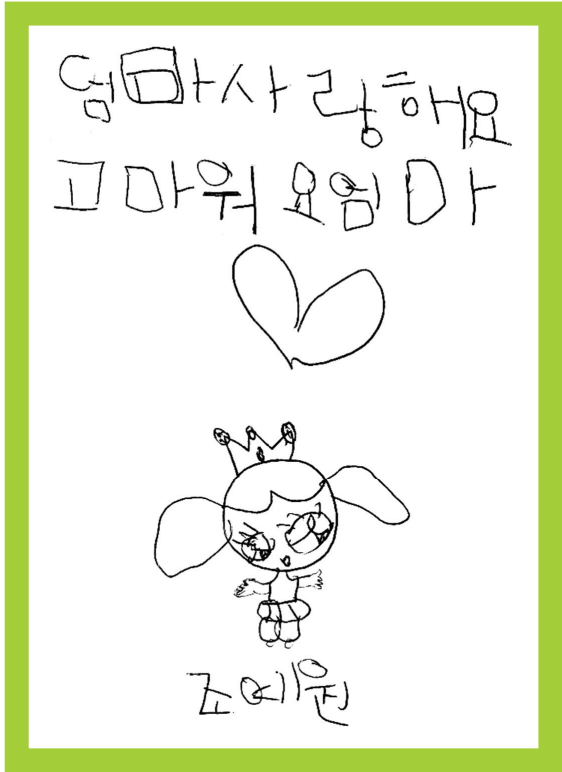
남편은 마음속에 이야기를 털어 놓지 못해

화병이 생겨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영청 힘들고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저까지 무너지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남편은 금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막내딸 예원이가 저게 써준 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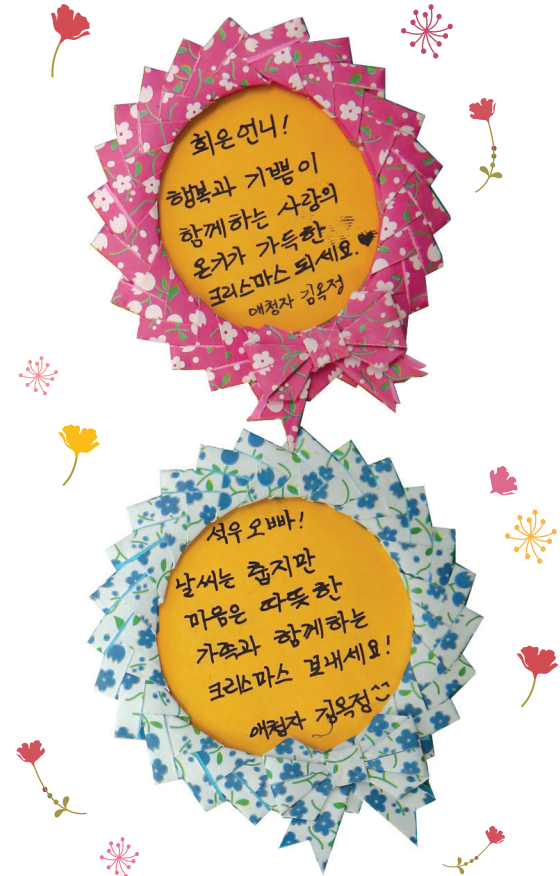


막내딸 예원이가 아빠랑 오래오래 살려면
아빠가 건강해야 한다면서 술은 줄이고
담배는 꼭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돌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꿰쳐 2015년에는 좋은 일들만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비고3 큰딸 서현이도 자습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꼭" 합격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우오빠, 최은연니... 우리 가족에게 '힘과 용원' 팡팡 넣어주세요.
항상 여유시켜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14. 12. 9. 충북 오랑에서 김옥정입니다.



최은연니!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애정자 김옥정

석우오빠!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듯한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애정자 김옥정



변화와 혁신, 위기 관리가 답이다

IBK기업은행 수유역지점 거래고객
(주)에스제이트랜드 유인석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의식주와 관련한 각종 유행을 창조하고 대중화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트렌드 세터(Trend-setter)'라고 부른다. 리복(Reebok), 푸마(PUMA), 휠라(FILA), 론즈데일(LONSDALE), 컬럼비아(COLUMBIA), 아디다스 골프(adidas Golf) 등 유명 스포츠의류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 (주)에스제이트랜드의 유인석 대표는 '트렌드 세터'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유인석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 꿈을 키워나갔다.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때도 '언젠가 내 사업을 하겠다'는 신념을 한시도 놓아본 적이 없었다. 의류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그는 20대 후반에 젊은 사업가가 됐다.

유인석 대표가 처음 뛰어든 곳은

의류제조 납품 시장. 1년 정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제조, 납품, 수출 했지만, 중국이 제조업 분야의 강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게 됐다.

“시대가 변했으니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의류 제조업에서 유통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백화점,

마트, 카탈로그, DM발송까지 사업영





역을 넓혔습니다. 대리점도 모집했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검토하다가 홈쇼핑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홈쇼핑에서 가능성을 찾은 유 대표는 2006년 리복코리아(주)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홈쇼핑 판매를 시작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서일까.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렸다. (주)에스제이트랜드는 각종 해외 유명스포츠 브랜드와 국내 총판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해 유통하는 의류유통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변화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대리점, 백화점, 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정리하고, 홈쇼핑, B2B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법. 유 대표는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각 변수에 따라 최소 4가지 계획을 수립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평소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유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어, 상대가 우리를 직접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사가 원하는 바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지켜야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획으로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

는 ‘의류’ 업체다 보니, 속명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재고’ 문제다. 다음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정해진 물량을 모두 판매해야만 손실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해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홈쇼핑과 B2B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몰에 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홈쇼핑 회사 카탈로그에 상품을 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고가 남을 때는 제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망은 (주)에스제

이트랜드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브랜드 계약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두 철저한 위기관리,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구축된 신뢰, 다양한 유통망 등 (주)에스제이트랜드만이 지닌 차별화된 강점 덕분이다.

IBK기업은행 수유역지점 임대현 지점장은 “(주)에스제이트랜드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유 대표님은 투철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직원들도 저마다 맨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획력, 영업력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닌 강점을 살려 (주)에스제이트랜드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고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다.

(주)에스제이트렌드는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주)에스제이트렌드가 달성한 매출은 약 500억 원. 내년에는 연 매출 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유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매사에 열심히 임하는 직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뿐이다. 유 대표의 책상 옆에 직원들과 찍은 사진 액자가 줄지어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이뤄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주)에스제이트렌드 유인석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수유역지점 임태현 지점장(오른쪽)

TIP 유인석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열심히 잘하는 인재들이 많아야 회사가 발전한다.
3.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주)에스제이트렌드

대표 유인석

본사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113(번동, 파스칼진빌딩 7층) (02-995-0921)

홈페이지 <http://www.sjtrend.com>

40대 이상 고객들을 위한, 은퇴 특화 상품

IBK 평생설계통장



입출금식

- 가입대상 만 40세 이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우대요건¹⁾ 충족 시

- ① 금리 : 매일 최종 잔액 50만원 이하 연 1.85% / 그 외 기본 연 0.1% 적용
(2014년 12월 15일 기준, 세전, 고지금리 추후 변동 가능)
- ② 타행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월 5회)
- ③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²⁾ 무료 가입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 1) 우대요건 : 연금수급 이력, 지정일 전후 3영업일 이내 10만원 이상 입금 등 기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상가 혜택 적용
- 2)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 (요건충족 익월 1일부터 1년간, 피해금액의 70%까지 최대 1,000만원 보상)

*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참조 및 영업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4-1886호(2014.12.16) 출급번호 SE407 게시기간 : 2015.06.30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상품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 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업은행의 분쟁 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80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유희경쟁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39-7430, e-mail:ibkethics@ibk.co.kr)



중소기업 명품전

IBK기업은행 중화동지점 거래고객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열정적인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2015년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요. **화이팅!**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꿈과 사랑의 기업'이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몸에 좋은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청우는 고객을 진정으로 아끼고 함께 성장하며, 고객에 의하여
선택받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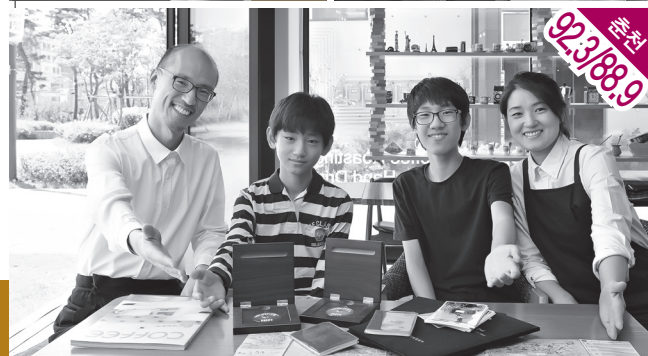
품과 사랑의 과자 — www.cwfood.co.kr
(주) 청우식품 TEL:02-942-0111



IBK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광석우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우리집가훈은 '남들과 다르게 살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제수연·한승열 씨 부부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딱 20년 전의 일이다. 교육대학을 막 졸업하고 특수교사가 된 제수연 씨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에 풍물패에 나가 풍물을 배우게 됐다. 당시 풍물패를 이끌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제수연 씨보다는 8살이나 많고 딸이 하나 딸린 처지의 홀아비인 한승열 씨였다.

풍물패를 다니며 얼굴을 익히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사귀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제수연 씨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어린 나이에 거기다가 직업도 뚜렷한 일등 신부감인 딸이 뭐가 모자라 아이 딸린 남자를 사귀냐 하는 거였다.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집안의 반대가 두 사람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었고 서둘러 결혼을 강행했다.

이 결혼을 두고 남편은 “그냥 사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거죠”라며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한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때 우리 집에서 반대만



안했어도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다정함이 듬뿍 담겨있다.

그렇게 요란했던 결혼이 끝나고 결혼생활이 시작됐다. 그때 큰딸이 열한 살이었다. 그 후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아 여섯 식구가 됐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아내와 달리 남편은 이제까지 40가지 넘는 직업의 맛을 보았다. 스무 살 때 신발가게 점원 생활을 시작으로 자장면 배달, 정수기 점검, 술집 웨이터, 인테리어, 설비, 목수 일 등등 손가락 발가락을 다 펴고 접어도 모자랄 만큼의 직업을 체험했다.

남편은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생각은 물론이고 사는 방법도 그러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었을 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들은 박물관이다, 관광명소를 데리고 다닐 때 이들 부부는 지리산 종주를 함께하고, 계절 따라 산과 들로 다니며 찻을 깨고, 나물을 뜯으러 다녔다. 매년 100포기의 김장을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과 함께 김장을 해왔다. 할머니네 밭에 가서 배추를 뽑고 무를 뽑고 그걸 실어와 씻고 다듬고 속을 버무려 마당에 묻는 일도 모두 아이들과 함께였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집 청소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이 집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일을 모두 잘한다.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요, 본인 생일날 저희 보고 학교 가지 말고 여행 가자고 하셔서 학교 빠지고 여행을 가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가족 행사 같은 데 같이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 그걸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야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



적인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부모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느껴요.”

큰딸 한가람 씨는 올해 스물일곱 살로 대학을 두 군데나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찾고 있다. 올 1월에는 두 달 가량 스페인을 여행할 계획이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직접 벌어서 충당할 계획이다.

가람 씨가 자라면서 아빠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남들처럼 살려고 하나?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였다.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를 삶의 목표로 사는 한승열 씨가 이번에 대형 사고를 쳤다. 혼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목공 실력으로 가구 전시회를 열었다.

남편이 목공에 손을 댄 건 아내의 부탁 때문이었다. 특수교사를 하고 있는 아내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체험하게 하고 한 곳이라도 더 구경시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유독 목공 체험은 가격도 비싼데다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늘 거절당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배워서 우리 애들 좀 가르쳐주세요” 애원을 했었다. 남편은 아내의 청대로 혼자서 목공을 배워 아내 학교 아이들에



게 체험을 시켜주었다. 목공을 배운 아이들은 나무에 흠을 파고 색칠을 하고 만들어진 가구를 보며 정말 즐거워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도 남편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아이들이 커가며 “아, 방이 너무 좁아요”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푹푹딱딱 다락을 만들어 주고, “아, 집에 옷이 막 늘어져 있어 불편해요” 그러면 방 하나를 개조해 옷장을 만들어 옷장을 만들고, “우리도 이제 컸으니 내 방이 필요해요” 하면 단층집에 이층을 만들어 아이들 각자의 방을 만들어줬다. 말만 하면 뭐든지 푹푹 만들었다. 아이들은 마치 놀이터 같은 집에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우며 자랐다.

작년에 남편이 “목수 아닌 목수로 산지 10년이 되어가니 나도 무엇 하나 남기고 싶네” 하더니 덜컥 장소를 대관하고 들어온 거다.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과 가구를 만들고 전시회를 기획하고 서울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큰딸을 불러들였다.

아내는 남편이 일을 벌이면 그걸 뒷수습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웬만한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가구들도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한승열씨표’ 다웠다. 책장을 보면 책의 키에 맞게 이리 저리 옮길 수 있게 작은 박스들이 책장 사이에 있어 이동이 가능하고, 식탁의 경우 평소 가족들이 쓸 때는 작게 쓰고 혹시 손님이 올 경우 길게 늘여서 쓸 수 있게 밑에다가 서랍형으로 하나를 더 매달았다. 의자의 경우는 엉덩

이가 닿는 가운데 부분을 파 놓아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버려진 가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얻어온 나무를 사용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버려진 잔가지를 주워 예쁜 무늬를 만들어 가구의 아기자기함을 살렸다.

이번 전시회의 작업을 한승열 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함께했다.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망치와 톱을 가지고 자신이 쓸 가구들을 만들었다.

“다른 집은 망치 톱이 위험하다고 안 시키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다 해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막내딸 벼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벼리는 이집에서 일머리가 가장 좋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을 잘한다. 집에 있는 6미터 깊이의 우물 청소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밧줄을 몸에 감고 들어가 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펼쳐졌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여성시대 방송을 통해 듣고 온 관객들과 지인들이 대개의 작품을 구입해갔다. 재료비 정도만 받고 작품을 팔아서 손에 남은 건 없다.

“돈은 안 모였지만 안 보이는 걸로 많이 남았어요. 전시회를 통해 경험과 실력이 늘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역시 이 부부는 셈법도 독특했다.

앞으로도 가구를 계속 만들지, 아니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그걸 할지도 모른다고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아있다.

즐겁고 신나는 일을 찾아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부부의 삶은 한편의 동화 같았다. 동화의 맨 마지막은 언제나 ‘...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인데 이 부부는 ‘... 두 사람은 결혼하여 남들과 다르게 사는 재미에 빠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가 더 어울린다.



코너 속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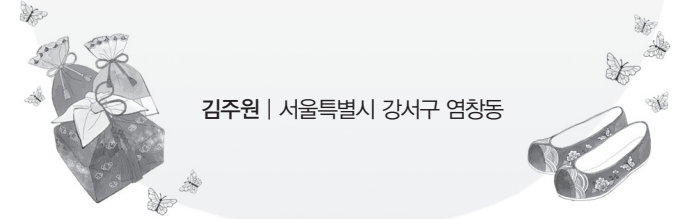
일러스트 | 조신애

- 85 지금 만나러 갑니다 헬크소녀
- 89 공감사연 공감전화 저희 집 막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92 장용의 단필총 눈물과 땀과 인내가 담긴 김치
- 97 나의 연애시대 아주 특별한 여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헬크소녀

김주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저는 법무부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라고 하면 대부분 생소하실 겁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범죄자 감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18명이 올해 1년간 무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난 11월 4일 보호관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창작무용 공연을 하였습니다.

‘무용 치료’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무용 치료는 부정적인 감정을 순화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심리 치료의 한 분야로, 저희 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째 실

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행을 저질러 지금은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있지만, 태어난 후 엄마에게 버림받아 엄마 얼굴을 모르는 아이,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와 생활하는 아이, 부모 없이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살아온 아이, 종종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 등 모두가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또한 약 80%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규칙과 약속을 지키고 1시간 이상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연습을 하고 공연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사고 없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작은 사고라면 공연 당일 리허설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금천구청 로비 밖 광장에서 민원인들 틈에 끼어 18명이 단체로 담배를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훈계와 외면 사이에서 갈등하는 민원인들의 복잡한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쁘고 착한 아이지만 화가 나면 괴력을 발휘하여 주변을 쑥대밭을 만들어 별명이 '헐크소녀'입니다. 헐크소녀 미정(가명, 15세)이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중학교 유급을 당해 학급 친구들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남자친구를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을 때려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체구의 수줍음 많은 소녀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할머니, 새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친엄마는 어릴 때 집을



나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종종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6개월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미정이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설득으로 올해 3월부터 무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기간 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4월 어느 날은 차비가 없어 무용 연습에 나오지 못한 사실이 부끄러워 보호관찰 담당 선생님께 무턱대고 무용 연습하기

싫다고 울먹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미정이의 행동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미정이가 학교 후배 어머니로부터 <내 딸을 괴롭히지 마라>는 영똥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쁜 아이로 오해를 받은 미정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 파란 괴물 헬크로 변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스스로와의 싸움에 이겨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후배를 만나면 폭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무용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참기를 잘했어요. 또 사고 칠 뻔했어요”라고 담당보호관찰관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재잘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평소라면 후배와 후배 어머니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며 난리쳤을 미정이를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정이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아빠도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학교 친구도 많아졌습니다. 무용 시간에는 늘 남들보다 먼저 와서 연습을 합니다. 내년에도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고 다닙니다.

어느덧 아이들을 만나 무용 프로그램을 진행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도 과거 비행청소년이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1년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끝이라는 후련한 마음보다 앞으로 미정이와 아이들을 매주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돌이켜보면 보호관찰 선생님보다는 아파나 오빠 같았던 지난 일년,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미정이뿐만 아니라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앞으로 잘 자라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사연 공감전화

저희 집 막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표수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저희 집은 딸만 셋인 딸 부잣집에, 전 첫째로 32살이고, 막둥이는 22살입니다. 저랑 막둥이랑 나이 차가 10살이나 나다보니 저에게 막내는 더 없이 어리고 애기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 엄마 생신 때였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막내 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막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어요.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난 남자도 싫고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외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는데 제 동생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몇 살이야?” 하고 물으니 막내는 말을 얼버무리듯이 “좀... 많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둘째 동생이 “나보다 많아?”라고 물었죠. 참고로 둘째의 나이는 28살입니다. 막둥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둘째는 눈이 퐁그래져서 “뭘? 그럼 큰언니보다 많아?” 이랬

더니 막냇동생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서 “서른살 정도로 보이는데 맞아?” 하니깐요. 땀을 들이던 막냇동생이 “큰 언니보단 안 많아... 32살이야.”

“뭘!”

저희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많진 않죠. 동갑이라서 그렇지. 엄마, 아빠, 저, 둘째까지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다그치니, 막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본인도 가족들한테 숨기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같은 반응이 나올 게 뻔하니까 말 안하고 숨겼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벌써 1년 6개월이나 만났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막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말하기까지 고민스러웠을지 좀 딱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나이 32살이면 결혼을 준비할 나이고, 여자를 가볍게 만날 나이는 아니잖아요. 분명 동생한테도 그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 나이 22살, 뭘로 보나 한창 좋을 나이인데 남자한테 코 껴서 시집가면 우리 막내의 젊음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동생은 겨우 22살이고 생일이 빨라서 한 살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저희 집에서는 완전 애기인데, 남자가 32살이면 완전 아저씨뻘이잖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결혼해서 애가 있는 녀석도 있고, 총각이래도 아저씨 냄새가 폴폴 나요. 그런데 그런 32살의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넘게 부모님은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하고, 동생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



닌 일일 수 있지만 저희 집은 이걸로 동생이랑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해서 집안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헤어지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더 반발심이 생겨서 동생이 집이라도 나갈까, 덜컥 애라도 가져서 결혼시켜 달라고 할까봐, 그냥 내버려 두라고 부모님을 설득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너무 속이 탑니다. 동생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만나는 게 제 잘못된 거 같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32살이지만 아직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철도 좀 없고 행동이 좀 어리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언니를 보고 자라서 10살 차이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10살 차, 연예인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요. 제 동생이 그 장본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야 32살이지만 제 동생이 32살이 되면 남자는 42살인데 예후, 정말 너무 심란합니다. 헤어지라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너무도 뻔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장용의 단 · 필 · 층

눈물과 땀과 인내가 담긴 김치

방희철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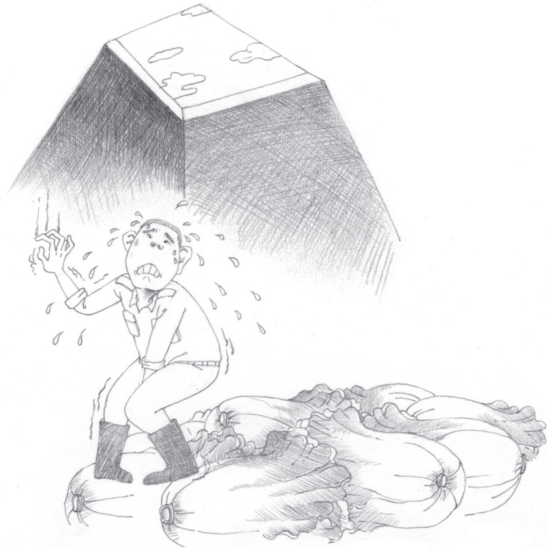
1981년, 강원도 전방부대에는 봄과 가을이 없고 겨울만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따뜻한 물에 세수를 한다는 것은 후임병 입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만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으로 단체로 목욕탕을 갈 때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한 포대병력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목욕탕에 가기 때문에 20명씩 한 팀으로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인 남성이 목욕탕에서 몸만 닦는다면 20분으로 충분하겠지만 그날은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임으로 한 달 동안 밀린 야전잠바나 전투복 같은 빨래를 해치워야 해서 목욕탕에서의 20분이란 짧은 시간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뒤, 한 달쯤 지나자 이제 군대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밤 경계근무도 곧잘 서게 됐습니다. 사실 유난히 잠이 많은 저에게 잠잘 시간에 근무를 서는 것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선임인 김 상병이 저에게 솔직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포병연대 병력이 겨울 동안 먹어야 할 김장을 모여서 하는데, 그곳에 지원해서 파견을 나가면 밤에 경계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가게 해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부 포대 분대장인 박 병장 이하 저의 선임인 김 상병을 포함해 우리 포대에서 7명이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김장하는 걸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제가 직접 김장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도착해보니 김장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추와 무를 실은 일명 육공트럭(2.5톤 트럭)이 10여 대쯤 되었고,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하는 커다란 저수조 대여섯 개(나중에 알고 보니 공병대에서 강물을 건너갈 때 도하작전에 쓰던 오래된 부교의 뚜껑을 제거하여 저수조로 사용했더군요). 칼과 도마는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왜 김장을 담그는 일을 '김장작전'이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30여 명씩 조를 나누어 작업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팀은 추운 날 하천변에서 작업을 해야 하니 땀뻘 부는 강바람에 손이 팽팡 얼었고 다들 표정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저는 작년에 김장작전에 투입되었던 박 병장의 기지에 힘든 일을 피해 마늘과 생강 등을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지하저장고에 쌓는 일에 투입되면서 그나마 추위도 덜하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념을 준비하는 일을 마치고, 한 쪽에서 절여진 배추를 버무려 김장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쯤 되자 간부들의 부인들이 도착했고, 김치의 간도 맞춰주시며 힘들게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 막걸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막걸리는 그동안의 피로를 잊기에 좋은 청량제였습니다.

그리곤 부른 배에 만족하며 지하 저장고에 김치를 쌓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지하 김치저장고의 규모는 웬만한 아파트 거실 크기만한데 가로, 세로 3m 정도에 깊이는 대략 어른 키 한 배 반 정도 되더군요. 우리는 사다리를 이용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과 벽면을 깨끗한 비닐로 감싸고, 맨 아래에 무를 깎 후, 본격적으로 날라 온 김치를 바닥부터 쌓기 시작했는데요. 김치가 조금씩 쌓이자 내려올 때 사용한 사다리를 쌓은 김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김 상병이 지하저장고에 투입되기 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리 생리현상 해결하도록” 하셔서 저는 미리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점심 때 시원하게 마셨던 막걸리가 이제야 뱃속에서 활동을 시작한 건지 슬슬 배를 압박해 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두 시간은 견뎌야 할 텐데 저는 참다 참다 김 상병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김 상병님,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는데?”

“저... 저 말입니다. 점심 때 먹은 막걸리가 요도 끝에 걸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입니다.”

“야, 임마. 그래서 아까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꼭 차서.....”

“야! 지금 어떻게 나간단 말이야? 사다리도 내릴 수 없는데?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던지 요령껏 조금씩 나누어서 바지 속으로 내보내고, 체온으로 말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

협박 반, 명령 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밖에 나가는 건 꿈이라는 걸... 하지만 차츰 압박해 오는 아랫배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등에서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비틀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지하저장고에 내려갈 때는 신고 있던 전투화 대신에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장화 안에다 일을 보자.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장화에 있는 그것들을 쏟아버리면 되겠지.’

저는 구석에서 돌아서 왼쪽, 오른쪽 장화 안에다 조심스럽게 볼일

을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워낙 오래 참았던 터라 양이 많았지만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반 정도의 불일을 처리했습니다. 아! 그때의 행복감이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장화 안이 미끄덩거리고, 김치 위에서 작업할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병사들의 겨울 양식을 깨끗하게(?) 지켜냈다는 자부심에 저의 불편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정도 지나고, 김치의 높이와 지면이 가까워질 때 쯤 미쳐 다 해결하지 못했던 불일이 또 아랫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조금만 뛰어오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김 상병에게 양해를 구하고 벽을 잡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마지막에 김치를 덮어야 할 여분의 비닐을 잡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장화! 다른 것은 몰라도 장화는 벗겨지면 안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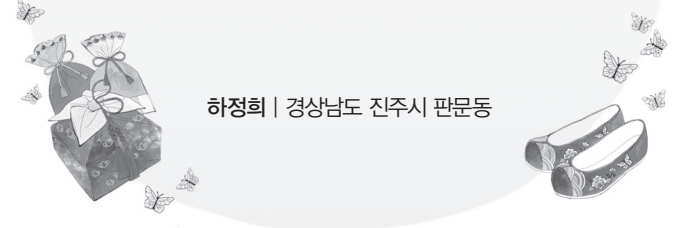
떨어지면서도 장화를 지키겠다고 온 정신을 장화에 쏟았지만 내 몸은 여지없이 쌓여진 김치 위로 내동댕이쳐졌고, 제 온 몸에는 매콤한 김치 양념이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창피함은 두 번째였습니다. 장화! 장화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급하게 몸을 수습하며 일어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화 속에 있던 찰랑거리던 물들이 아주 조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길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사들이 김장김치를 배식 받게 됐는데요. 그 김치 맛은 눈물과 땀과 인내가 담긴 김치여서인지 판타스틱했고 병장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김치를 보며 괜히 저 혼자 야릇해졌는데요. 지금도 김치를 보면 그때 생각에 혼자서 감회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연애시대

아주 특별한 여행

하정희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지난주에 조카 내외와 16년 만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조카는 큰 시누이의 아들인데 남편이 질부를 소개하면서부터 우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대형트럭으로 지방과 서울을 오르내렸는데 아주 잠시 사천의 패널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일을 하던 경리 아가씨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미스 김은 이렇게 참한데 아마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있지?”

“기사님도 참...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왜 없을까? 미스 김 같은 아가씨를 혼자 두는 건 대한민국 남자들의 직무유기이지! 미스 김,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소개해줄까요?”

“괜찮아요. 집에서도 자꾸 선보라고 하는데...”



“에이~ 그냥 나랑 저녁 먹는다 생각하고 정말 편하게 만나봐요. 내가 애써볼게.”

남편은 조카를 소개해줄 요량으로 경리 아가씨를 설득했는데 ‘부담스럽다’는 아가씨의 말 때문에 조카라는 사실은 숨겼다. 조카의 집은 전북 남원이었지만 경기도 안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삼천포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그야말로 오작교 역할을 잘해주었다. 첫 만남의 장소를 춘향이와 이몽룡이 첫눈에 반했다는 남원 광한루로 정하고,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다.

“너 이번 주에 남원 온다면서? 그때 아가씨 한 명 만나야겠다.”

“외삼촌,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긴말 할 것 없고,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광한루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양복 잘 차려 입고 오고, 용건 끝났으니까 전화 끊는다.”

남편이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약속장소에 나타난 조카는 양복은 커녕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하고 승용차에는 먼지가 뽕뽕 얹은 채로 나왔다고 했다. 남편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인사시켰다고 했다.

“두 사람 인사하세요. 이쪽은 내 친한 동생.”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난 먼저 가도 되겠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광한루 한 바퀴 휘돌아봐요. 여기가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난 곳 아니겠냐.”

그런데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첫 데이트 시간은 길어졌고 두 사람이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오작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주말마다 조카를 진주로 오라고 해놓고, 남편은 삼천포까지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나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통영 쪽으로 가볼까? 괜찮죠?”

“좋죠! 간 김에 거제도도 돌아볼까요? 어때요?”

“네, 좋아요.”

“우리가 눈치껏 빠져 줄 테니까 둘이 좋은 시간 보내요.”

남편은 정치 좋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두 사람이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었다. 아가씨한테는 조카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아가씨는 남편을 친절하고 정 많은 중매쟁이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고, 내가 항상 따라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참 편하게 데이트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다.

“둘이 자주 봐야 하는데 연락은 잘하고 있지?”

“예, 뭐... 밤새 통화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 두 사람 다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더 지체할 게 뭐 있어, 날 잡아!”

“예? 저희는 아직 너무 급한 거 같아요.”

“급하긴 뭐가 급해? 지금 해도 늦어~ 이런 건 중매쟁이가 나서야 일이 되지.”

결국 남편의 밀어붙이기 한판으로 두 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카와 질부될 아가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저희 신혼여행 가는데 운전도 해주시고 같이 가실래요?”

“이 사람아, 내가 거길 왜 따라가나?”

“저희를 이렇게 부부로 이어주신 분이잖아요. 같이 데이트도 많

이 했고 함께 가요.”

두 사람이 간절한 부탁에 우리는 시외삼촌과 숙모가 아닌 중매 아저씨와 그 부인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도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혼여행도 못 가보고 애들 셋을 키우느라 긴 세월이 흘렀는데, 조카 덕분에 우리도 신혼여행 같은 여행을 가게 되었다.

4박 5일 동안 동해안 곳곳으로 설악으로, 미시령, 한계령으로, 온천으로 정말 두 사람의 멋진 추억이 될 여행지로만 데리고 다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택에 모여 앉은 자리에서야 남편은 밝혔다.

“내가 사실은 상민이 외삼촌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이래두! 처음부터 조카 소개해준다고 하면 부담 가질까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정말이에요? 진짜? 어머어머~.”

“사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고 나중에 두 사람이 진짜 잘살게 됐을 때 그때 사실대로 얘기해 알았지? 둘이 정말 열심히 잘살아야 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조카 내외는 세 자녀를 두었고, 8년 전 귀농해서 사과와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산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던 농사가 3년 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 힘든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고 이 부부가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올해도 생각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기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조카 내외를 격려할 겸 우리는 함께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16년만의 동해안 여행, 탁 트인 동해바다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다가왔



다.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미어지는 감동을 느꼈고, 백담사의 돌탑 위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씩 쌓아두었다. 그리고 단풍이 아름다운 설악산 흘림골을 한 바퀴 돌아 주문진항에서 싱싱한 회로 저녁식사를 했다.

우리는 두 번째 신혼여행을 함께하면서 내년에는 더 부지런히 살자고 다짐을 했고, 다음 가을에 또 한 번의 여행을 계획했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앞으로 더 영글어갈 것이다.



미녀스 리만 원

그림 | 김곡, 우영미

※ 〈여성시대〉 가족 한태희(경기도 평택시)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경찰관이 되었고

공부에 뜻이 있었던 제 형은 흠여머니를 모시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희아~



형,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해, 형!

고맙다. 나 며칠 뒤 출국한다.

형이 많이 미안하다...

이거...



이럴 수가 형이 나를 위해 준비한...



미녀스통장이야. 270만 원 썼어.

이거 내가 좀 해결해 주라.

형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 쓴 건데.

저는 거절할 수 없었고 며칠 뒤 형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곧 통장 만기일이 다가왔고

그게... 형이 만든 건데요. 지금 형편이 안 되서 당장 감지는 못할 거 같은데 상환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의 명이자 본인이 아니라서 연기하는 건 규정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네 연기도 안 된다고 하니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가씨~ 내가 돈을 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연기해 달라는 건데 정말 안 됩니까? 예?

네, 고객님의 제 권한 밖의 일이라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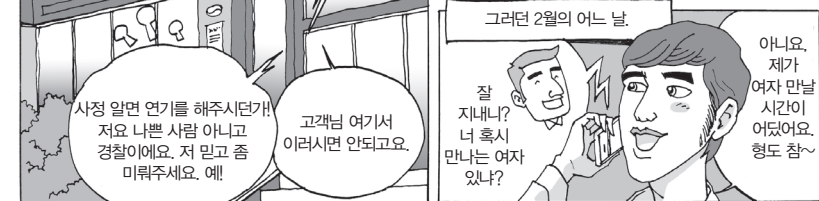


허침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구요! 그것도 못해줍니까?

고객님 사정은 아는데요. 그게...

결국 대출 연장이 못하고 수수료 끝에 은행에서 일하는 형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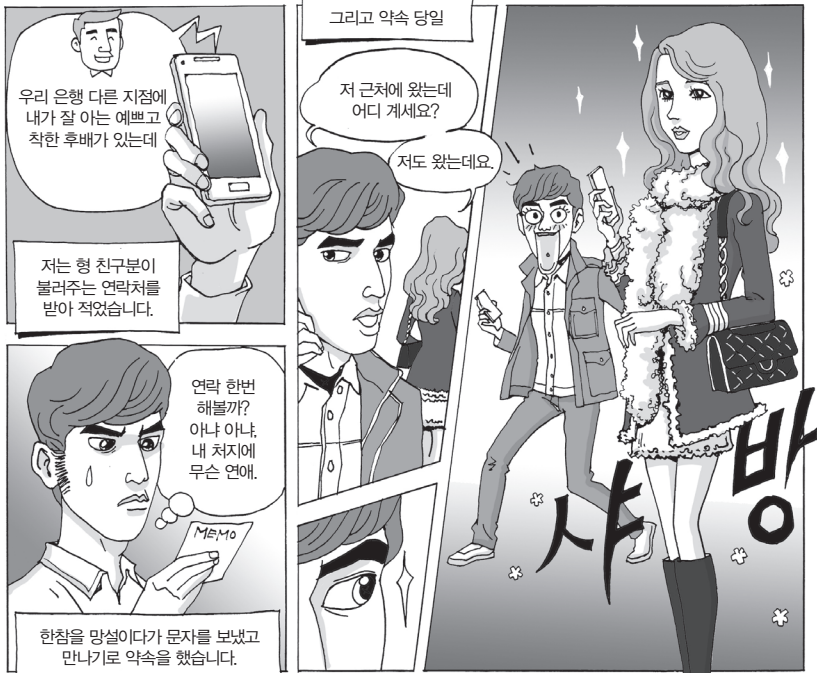
사정 알면 연기를 해주시던! 저요 나쁜 사람 아니고 경찰이에요. 저 믿고 좀 미뤄주세요. 예!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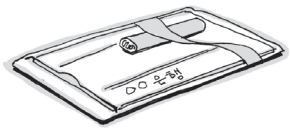
그러던 2월의 어느 날

잘 지내니? 너 혹시 만나는 여자 있냐?

아니요, 제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땀어요. 형도 참~



이런 게 인연이라고 하는 걸까요?
대출 연장 때문에 다뤘던 그녀는
지금 제가 당직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
웃으며 제 옷을 받아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형이 남겨준 27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값아줄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집사람'은 지금쯤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이너스통장이 또 다른 제 인생을 만들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 고마워~!



사랑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존중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저는 사랑보다는 존중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사랑하기에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에 책임지고 희생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정성을 들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오래 지속할 관계일수록 사랑이란 감정은 너무 뜨거워 바탕에 깔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는 감정이죠. 오래 가야 할 관계일수록 그 바탕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많았어요.” 그분의 울음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죠. 이것이 과연 울 일일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많았다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어떻게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가 미운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데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아이를 늘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를 존중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존중이 더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 아닌 남을 존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다, 지금의 부모 세대가 교육받은 문화에 존중이란 없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존중받지 않고 자랐기에 존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자라지 않은 우리 세대가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내 맘대로 하려 들지 않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



게 해주면 그것이 존중의 전부죠. 이론적으로야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적잖은 부모들이 아이를 존중하며 대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의 태도는 대략 이렇죠.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네게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과도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 해.’ 그렇게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 아이는 나중에 자신을 학대하는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도 쉽게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아이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고 부모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올바른 것을 말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며 올바른 방향을 지켜 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부모를 따를 수 있도록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따르지 않으면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이가 계속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아파하며 배우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옆을 지켜주어야 하죠. 부모는 아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머물며 스스로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결국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자랄지, 부모가 한 노력이 어떤 결과가 귀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이의 성공이 아닙

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이가 나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점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적잖은 실패를 겪겠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지닌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인간이고,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가 자신이 그런 인간임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믿음을 줘야 합니다. 부모가 믿을 때 아이도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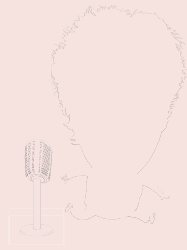
매 순간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아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의 사람이 잠시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다시 안 보려 들기도 하죠. 우리 역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런데 유독 아이에게만 함부로 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끊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듯, 남이 내게 대해주길 바라는 대로 아이에게 대해주면 됩니다. 존중을 받아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른 대접을 받기에 어른스러워집니다.

매일 잠자기 전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함부로 대했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더 나은 말과 태도를 생각해 적어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연습해보세요. 이런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나를 바꾸고,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비교적 괜찮은
한 해 되시길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어제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어느 어린이의 일기에 쓰인 내용이다. 이걸 다 돌려보고 “크흐흐” 하고 웃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열외는 없다. 나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또는 안전할지 아무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치매의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어김없다고 한다.

내 어머니의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있어서 약으로 다스린다손 쳐도 더 좋아지진 않을 것이니, 다들 각오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께 처방전 말고도 의사 선생이 내어준 숙제는 큰소리로 책읽기 1시간 반,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1시간인데 이걸 한자리에 앉아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서너 번으로 나누어서 하라는 말씀.

“한자리에 앉아 20여 분 노래하고, 20여 분 큰소리로 책읽기를 서너 번, 나누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는데, 엄마 말씀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신다. 힘들다신다. 하여튼 우리 세 딸은 엄마에게 쉬지 않고 말씀드린다. 뵈 때마다 확인한다.

큰딸, 작은딸, 두 딸이 새벽에 나가면 야밤에 들어오고 자기 일하기 바빠 모시고 살아도 늘 엄마는 혼자 계셨다. 제일 치명적인 것은 무릎이 아프면서 움직임이 훨씬 줄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저조함(감

정의 무기력)을 감지했지만 올 엄마에게 치매가 찾아 올 줄은 몰랐다.

나이 들어 쩡쩡한 시골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부럽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아무도 돌봐줄 이 없으니 스스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일하시고, 바닷가에 나가 찬거리를 해오신다. 가만 있으면 돌아가시는 줄 아는 분들이 그 맑은 공기 속에서 노동하면서 건강이 무너져감에도 건강하시다. 그게 기적 같다.

친구가 보낸 카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 50, 60대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받아도 놀라지 마라. 젊은이들 눈에는 할머니로 보일 수 있다.

- 손주에게 올인 말 것. 키워준 은공 몰라주기 쉽다. 괜히 마음만 공허하고 팔, 다리만 쑤신다.

- 등산복에 돈 쓰지 말 것. 색깔 맞춤 아웃도어 촌스럽다. 일상복과 정당히 섞어 입을 것.

- 살림살이 과감히 정리하라. 시집을 때 해온 혼수품부터 정리하자. 20~30년 넘게 썼으면 그만 써도 된다.

* 50, 60대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들에게 팔씨름 하자고 하지 마라. 일부러 저주는 것이다. 아들 입장에선 스릴도 감동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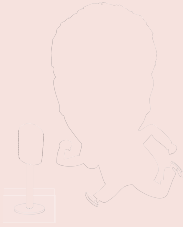
- 혼자 산에 가지 마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늘어진 러닝셔츠 입지 마라. 근육 처져, 어깨 처져 러닝셔츠까지 늘어지면 안스럽다.

- 인맥 자랑 마라. 나는 그를 알지만 그도 나를 알까? 나는 과연 누구에게 중요한 인맥일까?

새해다. 비교적 괜찮은 한 해이길 빌어본다.

극장으로 가는 길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크리스마스 직전인 지난해 어느 토요일 몇몇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송년회 겸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메뉴는 미식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송재광 교수가 알아서 예약하기로 했고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여성연맹’ 즉 아내들이 하기로 했는데 극영화가 아닌 다큐영화를 예매했다고 해서 “어? 그래?” 의외의 선정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다큐영화인 만큼 극장도 생소한 곳에 있었는데 종로구 소격동의 어느 미술관 지하에 있다는 거였다. 전날부터 날씨가 올 겨울 들어 제일 춥겠다는 뉴스도 있고 눈도 내린다니 차를 갖고 나가는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결국 눈은 오지 않았으나 추위와 바람은 제법 매서웠다. 다큐영화는 〈지휘자를 위한 1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지도 못하고 극장까지 가는 방법에만 몰두했다.

1시 반쯤 집에서 나와 걸어서 마을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는데 바람이 정말 매섭다.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많던 마을버스는 어디로 갔는지 오질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타고 터미널까지 가는데 어린 날 버스만 타면 멀미를 하는 바람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던 생각이 났다. 아직까지도 멀미를 하는 나는 참다 참다 한 정류장 전인 성모병원 앞에서 내리고 말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호남선터미널까지 갔어야 했다. 내가 들어간 곳은 7호선이라나. 우리는 3호선을

타야 했다. 기차처럼 승강장에 가만 서 있으면 3호선 지하철도 오고 7호선도 오고 9호선도 오는 줄 알았다.

송 교수 내외와 압구정역에서 두 시에 멋지게 도킹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이미 두시 반이 넘어서고 있었다. 그때 송 교수의 문자가 왔다. ‘2-1’ 문 쪽에 있으라는 거였다. 가만 보니 안전문 앞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2-1’은 맨 앞 쪽이어서 또 헐떡거리며 뛰어갔다.

그때 극장에 이미 도착한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 2시 50분 시작되는 영화인데 10분 넘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였다. “후~”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 안에서는 가만 있을 수밖에. 안국역에 도착한 시각이 2시 52분. 평소 남산서 훈련된 우리 넷은 무슨 큰일 난 듯 다급히 거리로 튕겨져 나왔고 풍문여고를 끼고 돌아 들어서 거의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하얘져서는 헐떡거리는 그의 아내를 보니 안 되겠기에 앞서 뛰고 있는 송 교수에게 물부터 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극장 앞에는 우 교수가 기다렸다가 지하 극장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어서 처음 가는 곳인데도 헤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 이미 영화가 시작되어 컴컴해진 극장 안으로는 장 교장이 손잡아 끌어주어 더듬거리며 앉을 수 있었다. 친구들의 주도면밀함과 친절에 감탄하며 사운물 몇 모금 꿀떡꿀떡 마시고 나니 큰 전율을 치른 느낌이였다.

참, 영화는 2PM의 노래처럼 십점 만점에 십짜~엄! 이후 역삼동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저녁 먹고 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집으로 오니 녹초가 되었다.

삶의 무게는 인생의 고단함도 있지만 이동의 고단함도 크게 보탬을 알게 되었다. 마치 세상 사람 모두가 지하에 있는 것 같았다. 지상에도 자동차와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서울은 짹짹이다. 위아래 모두.



《이 미친 그리움》

시인 림태주 산문집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새해가 되면 연간 목표를 세우는데, 매번 지난 해 세웠던 계획을 또 반복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포부와 다짐들이 반복되면서 지난 해 그렇게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를 야단친다. 그러나 야단맞는 나도 실제 그냥 잘 살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는 나인데도 우리는 늘 자신이 세운 계획의 율타리에서 자신을 더 가두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아끼고 배려하지 못하는 무책임함에 외로움이란 감정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싶다.

림태주, 이 책의 저자는 시인이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시인, 책바치, 명랑주의자, 야살쟁이, 자기에 탐험가, 미남자' 그러면 서도 시인답게 살아온 궤적을 글로 그려낸다. '바닷가 우체국에서 그리움을

수확했다. 봄으로부터 연애편지 작법을 사사하고, 가을로부터 우수에 젖은 눈 빛을 계승했다.'

시인이 쓴 에세이지만 시보다 더 마음을 쫓게 하는 책이다. 《이 미친 그리움》은 모두 시어(詩語)이면서도 마음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보다도 외로움을 이야기해 마음을 치유하는 글들이 다. '사람이 시를 쓰는 이유는 마음을 숨겨둘 여백이 그곳에 많아서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글이나 말보다 그리움을 숨겨둘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미래 까지를 한 사람의 일생 안에 담아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워할수록 마음의 우주가 팽창한다.' 글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고, 와인 먹은 뒷맛처럼 가슴이 가슴속으로 꺼져 내리는 듯한 맞춤형 한숨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연말을 보내고 맞는 새해에는 아침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하지만 아름다운만큼 눈부신 희망 뒤에는 감추고 싶은 추억의 외로움이 분명 있다.

그럴 때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던 시간을 보내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마음을 토닥인다. 그래서 이 책은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이기게 하는, 그래서 시간의 자유로움을 시간의 자애로움으로 읽게 만드는 새해에 필요한 진통제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을 들었다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실반지 하나 끼고 미역국처럼 말간 딸애 하나 낳아 시처럼 키우고 싶었어', '나의 말은 빗방울처럼 튕겨 나뒹굴었다.' '다 지난 일이 예요. 여자는 어두워진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말했다. 여자는 푸른 호두 나무 열매처럼 아프게 말했다. 잊었어 요. 오래전에 잊었어 요' 우린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잊었다고 말한다. 이 시인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책을 읽으면서 나와 대화가 시작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책은 나를 치유한다.

에세이를 통해 시를 보게 하고, 그 글을 통해 시를 읽게 하는 저자는 시를 놀람과 감동, 그리고 발견이라고 가르쳐 준다. '놀람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발견에서 오는 것이고, 감동은 보고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선물이지요. 발견이란 누구나 보는 것에서 아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는 무료하고 가난한 현실에게 주는 풍성한 판타지 같은 것입니다. 당신 몸에서 퇴화해가는 '감동하는 능력'을 재생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황홀하게 살다 가도록 도와주는 비아그라 같은 것이 시입니다. 부디 시 한편 읽는 인생 이기를 빕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시 읽는 인생을 추천한다. 이 책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의 아픔을 다시 오는 시간의 기대로 채워주는 마음의 시 같다.

림태주 저음 | 2014년 | 예담

